

# 南濟州郡 大靜邑 九億里

現地學術調查

1992. 7.31 ~ 8.3.

調查經緯 (53)

社會背景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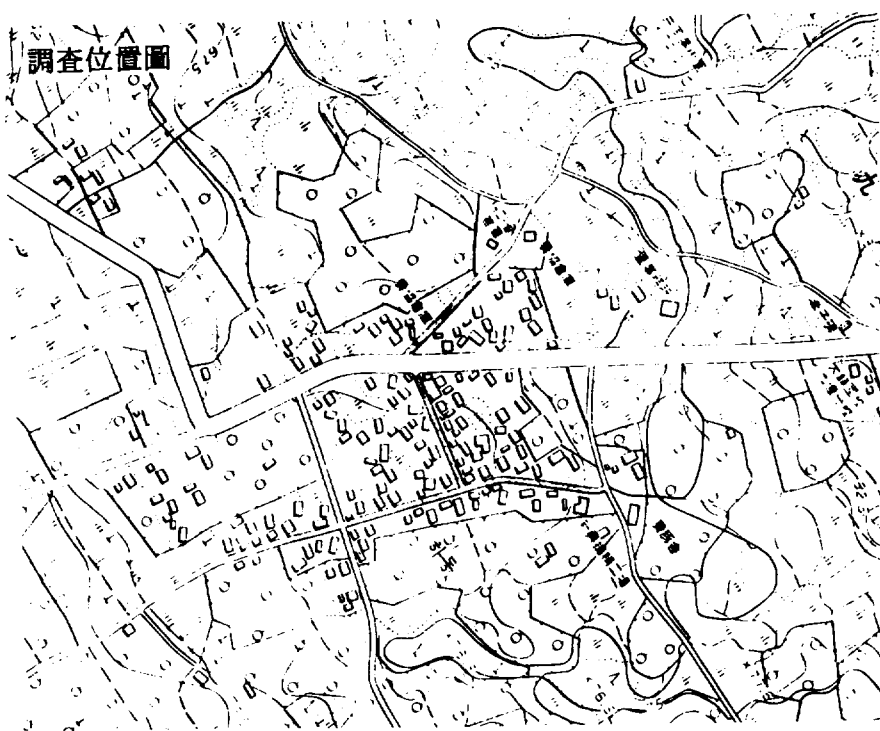
方言 (65)

信仰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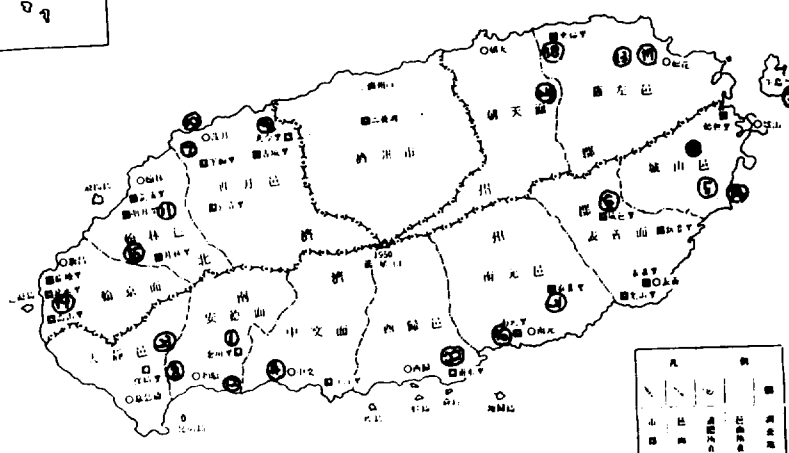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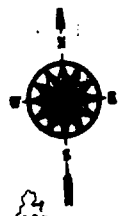
民謠 (88)

說話 (129)





**調查地點圖**



○	▲	■	□
●	●	●	●
●	●	●	●
●	●	●	●
●	●	●	●
●	●	●	●

① 調查點  
▲ 調查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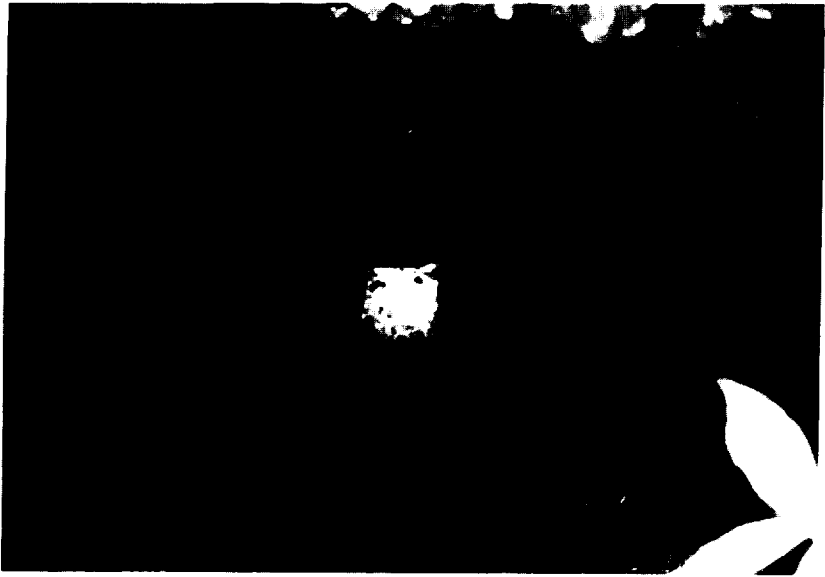
구억리 사무소



구억분교



다리논물(畚伊水)



도요지(내부)



4·28회담장소



효자비



산짓당



조사광경

## 調查 經緯

현지 학술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내 삶의 현장에 접근하여 그 지역에 서 영위되는 언어, 구비문학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는 지역문화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지역 문화를 심층 이해함 동시에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넓히게 된다. 또한 제주방언에 대한 조사는 고어에 가까운 어휘를 조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러한 의의 아래 일찍부터 현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본 학과에서 실시한 학술조사는,

- ㉠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 1972. 8.21.~ 8.24 )
- ㉡ 북제주군 우도면 ( 1973. 8.24.~ 8.28 )
- ㉢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 1974. 8.23.~ 8.26 )
- ㉣ 서귀포시 중문동 ( 1975. 8.18.~ 8.22 )
- ㉤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 1976. 8.18.~ 8.22. : 국교합동 )
-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 1977. 7.26.~ 7.29. : 국교합동 )
- ㉦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 1981. 7.16.~ 7.19. : 국교합동 )
- ㉧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 1983. 8.17.~ 8.20 )
- ㉨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 1985. 8.16.~ 8.19 )
- ㉩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 1987. 7.27.~ 7.30 )
-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 1989. 8. 1.~ 8. 4 )
- ㉫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 1991. 8. 1.~ 8. 4 )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의 학술조사는 1992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4일 동안 남제주군 대정읍 구덕리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을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우리는 먼저 현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읍, 면단위별로 파악한 다음 되도록이면 조사의 중복을 피했다. 그 다음

으로는 부락지나 향토지를 통하여 학술적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3-4군데 선정하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결과 대정읍이 물망에 올랐다. 해안 지대에 있는 무릉과 구억과 신평 세 군데를 사전 답사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평은 '용기 만드는 놀이'로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었지만 널리 알려진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애써 조사하지 않아도 될 듯 싶었다. 무릉은 교통이 편리한 점이 오히려 마을의 전통문화의 파괴도 연결되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구억리가 토기굴이 있다는 점과 4.3 당시 4.28회담이 있었던 곳이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민요채집에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 지역이 선정되자 반 편성에 들어갔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회배경, 방언, 민요, 설화, 신앙반으로 나누었다. 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답사가 있었으며 여기서 숙식 및 취사문제를 해결하고 마을현황과 제보자 등을 파악하여 사전 자료집을 만들었다. 3박 4일간의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31일 (제 1일) : 12시 40분경에 보성국민학교 구억분교에 도착하여 간단한 입소식과 이장님으로부터 마을현황 청취, 그리고 각 반 별로 조사준비에 들어가서 1차 조사에 나섰다.

8월 1일 (제 2일) : 2차, 3차, 4차 조사에 나섰으며 저녁에는 하루 조사의 결과에 대한 반별토론을 갖고 다음 날 조사에 대비하였다.

8월 2일 (제3일) :실제적인 조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5차 조사에 열심히 임했으며 저녁에는 선배님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전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8월 3일 (제 4일) :마무리 조사가 있었는데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놓친 점이라든가 제보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숙소였던 구억분교를 청소하고, 3박 4일간의 현지 학술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 도움을 주신 구억리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제보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구억분교장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사에 임해준 반장 및 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끝까지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 社會背景

指導教授 : 김상조

指導補助 : 김동윤 김옥주

班 員 : 허행자(4) 강영미(4) 김원태(2)

고윤정(2) 김새미오(2) 김동현(2)

김문기(2) 허인자(1) 홍창희(1)

I. 地理的 環境

II. 歷史的 環境

가) 실촌 유래

나) '검은 굴'과 '노랑 굴'

다) 효자 박창진

라) 4.3과 구억리

III. 人文的 環境

IV. 마을의 문제점 및 조사평가

## I. 地理的 環境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는 대정읍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지금은 서부산업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제주시에서 약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제주시로부터 35km, 모슬포로부터 5.5km, 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광리, 서쪽으로는 신평리, 남쪽으로는 보성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구역리는 동쪽으로는 '다리는 동산', 서쪽으로는 '다래코지 동산', 남쪽으로 '처남 동산'이 있는데 먼 곳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 든 배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형은 배형국이다. 지형면에서 대정읍의 17개 마을 중 150고지에 이르는 가장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군과 안덕경계로 지세의 굴곡현상이 심한 지역이다. 그러나 자연방풍이 잘 되고 목장이 가까워 축산과 과수원 적지이며 토양은 사질양토 내지 사양토이다.

구역리는 1km를 사이에 두고 상동, 하동 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구석밭'을 중심으로 실촌된 상동과 4.3사건이후 재건된 하동이 행정 구역상 구역리에 속한다.

마을의 경지면적은 총 617ha로 대정읍 총 경지면적 8,435ha 의 7.3%에 해당 하며 마을의 중심 산업이 감자, 보리, 콩 등 밭농사임을 말해주듯 전이 379ha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수원이 89ha, 임야가 70.3ha이다. 구역리 이장님의 말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과수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단위 ha)

	총계	전	답	과수	임야	대지	기타
면적	617	379	4.5	89	70.3	17.1	57.1

('92년 대정읍사무소 통계)

구역리는 물이 몹시 귀하여 급수문제가 늘상 문제였다. 특히 식수와 기타 생활용수 외에 가축을 사육하였기 때문에 급수문제는 주민의 생계유지와 비례될 만큼 귀한 자원이었다. 구역리의 급수장으로는 '다리는물', '고기물', '새서미', '어뭇', '역왓', '홍구물' 등이 있다. 또 당시 식수용으로 마을의 장정들이 만들 었다는 '새물통'이 상동부락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 식수사정은 1965년 상수

도가 가설되면서 어승생이 물줄기가 마을에 흘러들면서 물고가 트였고 1974년 지하수를 개발하여 현재는 100% 급수율을 갖추고 있다.

구역리의 상동부락에는 아름답디 팽나무 세 그루가 마치 방향을 가르쳐 주려는 듯 서 있다. 그 중 두그루는 상동부락 중앙부의 낮은 언덕위에 나란히 서 있어서 주민들이 각각 '굴하르방 폭낭', '굴할망 폭낭'이라 부른다. 지금은 남제 주군이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령이 약 250-300년이 되고 수고 14m, 나무둘레 2-3m된다. 나머지 한 그루는 '다리논물(奮伊水)' 옆에 서 있다. 이 나무에는 '조가집터'에 얽힌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구역리는 보성국교 구역분교를 중심으로 상동과 하동으로 나누어진다. 하동은 '4.3이후 재건된 지역인데 땅변지가 보성, 안성으로 되어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락현황	법정리	행정리	자연부락	반 수	비 고
	구역리	구역리	상, 하동	4	'구석밭'

## II. 歷史的 環境

### 가) 설촌 유래

구역리의 설촌시기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전하는 바 없으나 대략 전해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대정현 설치당시로 추정하고 있다. 현 구역리 640번지(하모리 강정환씨 소유) 속칭 '구석밭'이 최초 설촌지로 알려지고 있다.

『靜友誌』에 소개되어 있는 설촌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전에 현 구역리 상동부락 동쪽에 '다리논물'이라는 못 주위에 조씨,문씨가 살아서 '조가집터', '문도령집터'이라 불리우고 또 상동부락 서쪽에 양씨가 살았으므로 '양가집터',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고씨가 살아서 '고광우집터'라고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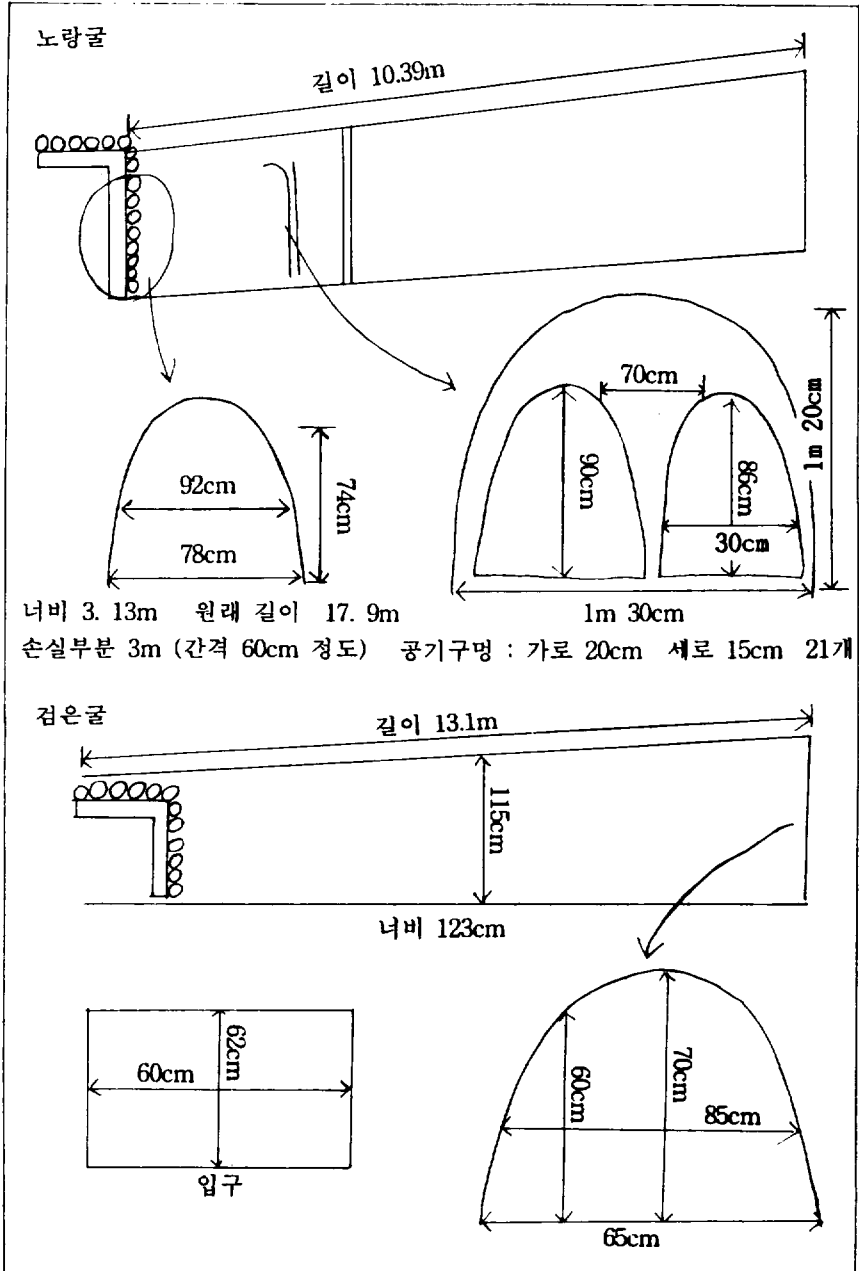
구역리는 처음 조, 문, 양, 고씨 등이 모여 살면서, 웅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구역리 도요업의 시작이다. 얼마 뒤 이들은 楸旨里 '명이논'으로 넘

어가 버리고 뒤를 이어 이 곳 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여기서 목축과 도요업에 종사하며 살았는데 도기를 행상으로 하여 식량이나 다른 생활 필수품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제주도 전역에 공급하며 생활하였다. 이들이 처음 정착한 곳은 안성리 상동이었으나 1915년 안성리에서 분리, 부락 명칭을 '구역리'라고 고쳤다. 구역리 상동부락 북쪽 '가래동산' 옆에 큰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 구석이 아홉개가 되어서 '구석밭(九角田)'이라 했고 구석밭 주위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구석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이름을 지은 분은 안덕면 서광리 訓導 김행위라는 분이였다 구석밭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 九億里이다。」

#### 나) '검은 굴'과 '노랑 굴'

구역리가 1개의 자연취락으로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은 '구석밭'일대가 목축 및 용기 굽는데 알맞아 윤, 고, 김,박씨 등이 정착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은 구역리가 사질양토 및 사양토(이곳 사람들은 '질흙'이라 부름)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웃 마을 신평리 등지에서 '질흙'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땀감을 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구역리에는 검은 용기굴, 노랑 용기굴 등 인공토기 굴 2개가 있다. 이 굴은 우리 조상들이 생활도구로 사용하던 용기를 만들던 곳으로 흙과 돌로 축조된 굴모양의 도요지에서 토기를 제작하여 도내로 보급하였다. 이 굴은 현재 남제주군이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굴 주변이 가시덩굴로 뒤덮혀 도요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안내문표지의 내용이 오래전에 작성된채 방치되어 도요지의 설치년도를 찾기에는 혼선을 빚는 등 그 보존상태가 허술했다. 대부분의 구역리 주민들이 용기를 구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선조들에 뿌리를 두고 있어 1960년대 말까지도 그 자신의 용기제작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의 도요지에서는 주로 용기류로 물항,허벅,단지, 고소리 등 일상생활용구의 일부가 만들어졌다. 용기의 재료가 되는 사질양토는 신평리에서 소와 마차로 옮겨 왔는데 그 채취과정과 운반과정은 용기를 굽는 일 못지 않게 힘든 작업이었다. 사질양토가 채취된 곳은 지금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마을에 도요지가 생긴 것은 땀



감이 풍부하고 방풍이 잘 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역리 주민들의 도요업은 생계 유지와 다름 아닌 것이었고 그 고통과 집념은 지금도 남아 있다.

#### 다) 효자 박창진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전 구역리에 박창진이라는 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친이 병으로 앓아 누워 온갖 약을 다 써도 고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부친의 입에 넣어 소생하게 하여 몇 년을 더 살다가 가시도록 하였다. 장례를 극진히 지내고 나서 3년상에 얼굴을 셋지 아니하고 머리를 빗지 않았으며 제사때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다하여 종신토록 사모하였다.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중앙에서 그에게 효자비를 내렸다한다. 이 효자비는 구역본교 서쪽에 세워져 있어 오가는 젊은이들의 본보기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있다.

#### 라) 4.3과 구역리

구역리 상동에서 내리면 기억자로 드리얏은 두채의 빨간 양철지붕의 집이 보인다. 그 곳이 4.3사건 당시 4.28회담이 있었던 구역국민 학교자리이다. 유격대가 주둔하여 훈련을 받았다는 신평곶과 9연대가 있는 모슬포와의 중간지점이 구역리였으므로 회담장소로 알맞은 곳이었다. 대정지역 대부분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도 인민위원회가 있었다. 8.15 다음 해인 46년 초에 마을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하고(윤경생씨) 대부분의 행정 체계를 인민위원회가 관장하였다. 구역리 인민위원회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규합하여 마을의 순찰을 돌기도 하고 망국적 양담배, 양과자를 배척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73호 가구의 크지 않은 마을이었으므로 적극적인 활동은 드물었지만 4.3이 시작되면서 유격대와 합세하여 활동을 하였다. 구역리에서 처음 인명이 살상된 것은 5월 중순이다. 경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윤경화, 윤경홍 형제가 유격대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후 소개가 되어 내려가기 전까지 군, 경찰에 의해 안성, 상동의 연락책 2명을 포함하여 18명의 인명이 살상된다. 원래 있던 마을을 버리고 인성리 상동 현 구역리 하동에 마을을 재건하고 외곽 돌성을 쌓은 것은 1950년 3월이

었다. 1년 6개월 동안 소개 갔다가 돌아온 땅에서 나무 몇 개로 세운 가건물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성을 쌓고 여덟 군데 초소를 세웠다. 성을 쌓아던 흔적들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부분 부분 성이 허물어지고 덧자란 덩굴이 뒤덮혀 있었다.

### III. 人文的 環境

구역리는 1992년 현재 총 114가구에 인구는 443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30명, 여자 2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느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구역리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농업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난, 자녀들의 교육 등으로 도시지역으로 진출 때문인 것같았다. 구역리 거주자의 대부분 가구는 농가이다. 비농가의 경우는 구역리에 주소를 두고 제주 시 등지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상업 등 겸업을 하는 경우이다.

구 분	농가 호수	전 업	겸 업	농가 인구	기 타
	101	91	10	410	

(읍사무소 통계)

구역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성씨는 김씨가 24가구로 가장 많고 고씨, 박씨 강씨의 순이다. 설촌 당시에 살았던 양씨 조씨 등은 없었다.

김	고	박	강	이	문	황보	홍	장	허	윤	기타
24	20	15	12	10	5	3	3	2	2	1	1

구역리의 자생단체 및 조직으로는 청년회, 부녀회, 마을원로회, 노인회, 4H청 소년회, 영농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기관 시설로는 구역분교, 교회, 복지회 관, 공동창고 등이 있다. 점으로는 천막계, 화단체 무궁화친목계 등이 있다.

구역리 주민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아 1931년 안성리에 있던 대정보통국교

가 모슬포로 이전하자 그 후 보성리에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구장이었던 조기학씨와 학교건립 기성위원장 강진숙씨 등 마을유지를 중심으로 일본에 건너가 있던 고태규 김여권씨등의 도움을 받아 대정북국민학교를 설립 1944년 인가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48년 4.3사건으로 인한 중산간 부락 소개령에 따라 전 주민이 인근 인성,보성, 안성리와 모슬포 등지로 비상식량을 가지고 마을을 내려온 후 학교건립을 위해 사두었던 목재가 모두 불타없어져 버렸다. 그후 1965년 4월 1일 보성국민학교 구역분교장이 개교된 후 지금의 위치에 아담하게 학교가 건립되었다.

구분	학급편제 및 학급수			교 직 원			
	1	2	계	주임교사	보조원	기능직	계
학급수	0.5	0.5	1				
남	3	5	8	1		1	2
여	0	4	4		1		1
계				1	1	1	3

구역분교는 재정상 10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들어 점차 이농현상이 뚜렷해지고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취학아동이 급격히 줄어들어 1995년도에는 취학아동이 1명도 없어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부산업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 구역리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근래들어 교통편이 좋아져서 서부산업도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40분당 1회씩 일일 17회 통과하고 순환버스가 하루 6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구역리-제주시는 약 50분 소요되며 구역리-모슬포는 약 15분 소요된다.

구역리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구마 유채 등의 환금작물을 많이 재배하였으나 지금은 마을의 지형면으로 자연방풍이 잘 되기 때문에 감귤과 축산 등으로 연간 소득이 천만원에 이른다.



구분	감자	고구마	콩(대두)	녹두	벼	감귤	기타
면적 (ha)	28	16	44	1	1	45	10.1
생산량 (톤)	2,000	2,412	158	320	320	1,550	

구역리의 가축현황은 번식우 325마리, 비육우 154마리이다. 구역리에는 이 밖에 6군데 양돈장이 있는데 양돈장은 모두 외지인 소유였다. 가구별 소득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농기계 보급율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계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력이 많이 들고 있다.

농업원 동기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바인더	콤바인	과일선 별기
5	55	4	28	8	4	2

차량별	승용차	농사용 작업차	봉 고	기 타
15	3	4	3	5

(대정읍 사무소 통계)

#### IV. 마을의 문제점 및 조사평가

구역리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보건소의 부재이다. 구역리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급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모슬포까지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구역리 주민들은 읍,군에 진정서를 내어서 진료소를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군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면 허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지를 공동부담하여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둘째 집번지와 땅번지의 불일치이다. 구역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하동은 4.3 당시 재건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으로 보성,안성에 속한다. 구역리 주민들은 집주소를 대부분 소개전의 집주소를 쓰고 있어서 구역리로 되어 있고 땅번지는 인성,보성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개량문제가 생겼을 경우 행정처리가 복잡해지는 번거로움이 있다. 구역리 주민들은 읍,군,도에 탄원서를 내고 행정구역을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성,보성,구역리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해주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성의를 보였다.

셋째 돈사의 문제이다. 돈사는 구역리 상동부락 동쪽에 외지 사람이 땅을 사서 양돈을 시작했다. 지금은 여섯 군데에 개인당 150평씩 양돈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냄새와 파리가 지독해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김동규씨가 그 지역에 400평의 규모로 돈사를 만들겠다고 하여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지만 주요한 것만 살펴보았다. 구역리의 사회배경의 측면에서 조사를 하면서 구역리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사회배경반의 문제점으로는 반원들의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의 미숙과 성의부족, 학술조사에 대한 이해부족,예비모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개개인들의 개인적 사정과 경험자의 부재 치밀한 조사계획이 없었음은 현지 학술조사를 더 효과적인 성과로 이끌어 내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해 사회배경반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겠다.

제보자 : 강영화씨  
강창언씨  
윤여생씨  
이신생씨

참고문헌 : 대정읍지  
월간제주  
제주신문 80년 4월 10일자  
4.3장경  
남제주군 통계자료

# 方 言

指導教授 : 강영봉

指導補助 : 현계철

班 員 : 이차경(4) 양정희(4) 강정렬(3)  
고순선(3) 문미영(3) 양인자(3)  
고맹훈(2) 강선열(2) 김미영(2)  
송성덕(2) 오영윤(2) 윤경순(2)  
이은정(2) 장은아(2) 정현주(2)  
허성미(2) 임선희(1)

## I. 머리말

## II. 조사 어휘의 분류

- |        |          |
|--------|----------|
| 1.농업명  | 5.지명     |
| 2.음식명  | 6.감각어    |
| 3.인체명  | 7.기타     |
| 4.질그릇명 | 8.제보자 명단 |

## I. 머리말

이 보고서는 1992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행해진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학술조사에서 조사된 '방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농업명, 음식명, 인체명, 질그릇명, 지명, 감각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시, 능률과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예비모임에서 『우리말 분류사전』, 『국문학보』, 『백록어문』, 『한국 방언조사 질문지』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학술조사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럿이 몰려다니면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사물명 조사반, 감각어 조사반, 금기어 조사반으로 나누어 조사에 임했다. 순수한 제주 방언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노인층이므로 발음을 똑똑히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가려서 한 항목에 대해 여러번 조사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기도 했다. 마을 분들이 여럿 모여서 답소를 나누는 데서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조사자들은 이렇게 면접을 통한 조사를 하면서 필기와 녹음을 병행하여 기록하였다. 자료는 필기한 것과 녹음한 테이프를 점검하여 공통되는 것을 뽑아 정리하였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금기어 조사를 보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기어 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질문을 유도해 내는 어려움을 겪었고, 조사 대상자의 불명확한 발음으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음 조사를 기약하면서 여기에 수록하지 않는다. 표기는 분철을 원칙으로 하였고 옮기기 어려운 것은 제보자의 발음에 충실하였다.

## II. 調查 語彙의 分類

### 1. 농업명

표준어	구억리 방언	비고
벼	나록	쌀이나 밥 속에 섞여 있는 벼 이듬해에 씨로 쓰려고 둔 벼
벼이삭	구구리	
뉘	죽뎡이	
벌씨	나록씨	
김매다	검질맨다	

애벌 / 두벌	초벌/두벌(매다)	
놉	놉	하루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함
쟁기	잠대	논밭을 갈아엎거나 골을 만들 때 쓰는 농기구
보습	보섭	쟁기의 맨 밑에 붙어 있는 것으로 땅 파는 날
벗	벧	보습 위에 붙어 있는 쇠날인데 흙을 얹어 젖히게 하는 것
호미	굴갱이	
자루	주룩	
괘이	목괘이	
삽	가래죽	*혹 올리꼭 푸는 거
벗단	못	*흔 못, 두 못허멍 세었주
벗가리	늘	
벼훑이	클	
짚	보리낭 / 찌	타작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줄기
새끼	노	새끼를 가로 세로로 엮어 짜서 네모지게
명석	명석	만든 것으로 흔히 곡식을 말릴 때 쓰임
(짚) 방석	방석	명석보다 약간 둥근 것
광주리	풀벼른 구덕	대 싸리 벼들 등으로 만든 울이 낮은 그릇
바구니	바구리	대 싸리로 둥글고 속이 깊게 걸쳐 만든 그릇
삼태기	굴체	흙이나 거름을 담아 나르는 도구로 짚 싸리 대로 만든 것
무	눔배 무수	
무말랭이	생기리	
장다리 무	지지	*눔배엔 쇠뿔 눅뿔하고 사발눔배가 있는디

채소	송키	밭에서 길러 먹는 온갖 푸성기를 통틀어 말함  배추의 노랑고 연한 속 부분  < 곡식을 파종 할 때의 동작 >
나물	늑물	
고갱이	속아진 것	
파	마농	
파씨	동지	
고구마	감재	
감자	지술	

	싱근다	간다	뿌린다
감재	0		
지술	0		
콩 풀		0	
수수			
조		0	
보리		0	
볍씨			0

## 2. 음식명

표준어	구역리 방언	비고
간장	장물	콩을 갈기 전에 물에 담는 행위
두부	듬비	
불리다	물크다	
콩나물	콩지름/ 콩늑물	
상추	부루	*외는 옛날부터 이었던 거고 오이랜 현 전 이제사 나온 거주
오이	외 / 물외	
부추	새우리	
반찬	출래	
술	술단지	

가마	두말띠기	주로 콩 삶을 때 씌 *ㄱ.말치 : 큰솥. 주로 밥할 때 씌 ㄴ.다투기솥 : 작은 솥 ㄷ.옹주리 : 출래만 지져 먹음 ㄹ.다톨퇴기 : 국 끓이는 거
이남박	남박새기	쌀을 일 때 쓰는 나무바가지. 흔히 등글게 풀이 파여 있음.
조리	조루	쌀을 일 때 쓰는 계구로 흔히 대나무 울이 나 철사로 만듦.
주걱	밥자	*쇠로 만든 건 우금, 나무로 만든 건 남죽
누룽지	누닝이	
승능	누닝이물/승능물	
가루	가루	
흰 떡	출떡	멥쌀가루에 고수래하여 시루에 찌서 절구 에 떡매로 친 떡
백설기	침떡	쌀가루로 아무 것도 넣지 않고서 시루에 찌서 만든 떡
고명	양념	*떡 위에 놓는 것은 우적이런
새알심	송아지떡 / 옛주배기	팔죽을 쓸 때 찹쌀이나 수수가루를 반죽해 서 새알만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것
수제비	주배기	밀가루를 반죽해서 맑은 장국에 적당한 크 기로 떼어 넣음
엿기름	굴	보리에 물을 부어서 삭이 나게 한 다음에 말린 것
감주	감주	식혜와 거의 같은 것인데 밥알이 가라앉고 부영게 된 것
부엌	정제 / 정지	*방 때젠 허는건 굴묵이런
아궁이	소깁알	
부뚜막	소떡	

고무래	당그네	
부삼	수금프/불가래죽	
성냥	화곽/불곽/곽	

### 3. 인체명

표준어	구역리 방언	비고
머리카락	머리카락	
가마	상감 / 가매	
가르마	갈름	
턱	턱가리	
수염	쉬염	
턱수염	턱가리 수염	
코수염	코췌염	
구레나룻	늑대수염	
얼굴	노	
뺨	양지	
볼	볼매	
보조개	보조개	
볼거리	귀뚱치기	
이마	임맹이	*멍얼 : 사타구니에 난 것
눈	눈	
검은자위	까만자	*눈망댕이 : 욕할 때 씀
흰 자위	흰자	
눈두덩	눈뚜개	
눈썹	눈썹	*눈썹은 서울말이영 마칠반이라
눈곱	눈곱채기	
다래끼	개썸 / 개죇	개썸 : 아래 난 것. 개죇 : 위에 난 것
소경	봉사	



애꾸	외눈배기	
코	코	*물코 : 납작한 거
입술	이빠우	*얼챙이 : 입찌진 사람
혀	새	
병어리	말모르기	
말더듬이	버버리	
귀	귀	
귓볼	귀자락	
귀에지	귀뺨	
귀이개	귀오기	
귀머구리	귀마구리	*욕할 때 : 귀막시
세수대야	세명끼	
거울	색경/강애미	*강애미랜허는 것은 일본말이주
얼레빗	얼레기	
참빗	챙빗	쉬챙빗 : 서캐를 잡기 위한 것
손	손	원손 : 원착손    오른손 : 노단착손
마디	무디	
겨드랑이	조깅이	
배꼽	배똥/배또롱	
넙척다리	허벅다리/큰다리	
무릎	성무니깡/동무릎	
오금	주금태기	
저리다	자리다	
정강이	정깅이	
뼈	팜	
복사뼈	귀마리팜	

#### 4. 짚그릇명

허벅능생이, 망데기, 알동, 소능생이, 합단지, 대황, 물황, 시불통개, 시불통개알동, 조막단지, 시불통개(아래 것), 셋제비(위의 것), 망데기 소능생이, 동이(위의 것), 알동(아래 것) 등이 있다.

\* 그릇을 굴 속에 넣어 구울 때 한 줄 \*

웃항아리(=장독, 춘디미), 알항아리(=알동), 허벅능생이, 망생이, 동이, 셋제비, 개장태, 소능생이, 큰대바지, 아기대바지, 조막단지, 합단지.

## 5. 지명

\*구역리(구석밭, 구역) : 본래 대정읍 우면의 지역으로서 구석밭 또는 구역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성리 일부를 병합하여 구역리라 하여 제주군 대정읍(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46년 남제주군 에 편입되었다.

### \*동산류

- 그래동산 : 구석밭 옆에 있는 등성이, 가래처럼 생겼음.
- 개사린동산 (개사린 물유) : 평밭 남쪽에 있는 산, 지형이 개가 앉아 있는 형국
- 거명굴 동산 : 용기 전에 있는 등성이, 검은 용기를 만들었던 곳.
- 굴동산 : 용기 전 남쪽에 있는 산, 굴이 있음.
- 도채비 동산 : 단드르 서북쪽에 있는 산, 굴이 있음.
- 외소낭아진 동산 : 새동네 남쪽에 있는 등성이. 소나무 한 그루가 외따로 있음.
- 진동산 : 다리는 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
- 처남동산 : 서구지 서남쪽에 있는 산. 처남(도토리나무)이 많은 곳.
- 큰 동산 : 용기 전 남쪽에 있는 산.
- 포켓동산 : 다리는 북쪽에 있는 등성이. 일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내는 곳.
- 호장동산 : 망동산 남쪽에 있는 등성이.
- 뭍허리 : 진므르 서북쪽에 있는 산.
- 그외 서쿠지 동산, 서드릭 동산, 고장동산, 뽕족동산, 망동산, 등이 있다.

6. 감각별 분류에 의한 조사

1) 청각어

종류	구역리 방언	비 고	종 류	구역리 방언
개	강강	짚다→ 주꾸다	비(雨)	자르룩,삭삭삭, 와시시시
고양이	애옹애옹, 아옹	고냉이	소나기	싸락싸락
개구리	꽤꽤	개꿀내비	우박	스룩스룩 싸룩싸룩
닭	꼭꼭꼭	둑	함박눈	퍼플퍼플
송아지	(음)멍-	송애기	깨지는 소리	살강
소	(음)망-	쇠	부딪히는 소 리	왈강달강 당글랑 당글랑
말	호오오웅	벗 또는 짝 을 찾는 소리	물 끓는 소 리	수왕수왕 (황왕)
맹꽁이	맹-맹맹꽁맹꽁	맹마구리	섞는 소리	수엇수엇 와드득 와드득
매미	꽤꽤	재열	쿓소리	크롱크롱 커커커 커르릉
새	조족조족	모이 먹는 소리(생이)	숨소리	호웅호웅
족제비	궁궁	쥐다리	어린 아이 울음	흥액흥액 뼉뼉
돼지	꽤꽤	도야지	불때는 소리	와다닥 와다닥
장평	걱걱		때리는 소리	와삭와삭
암평	쇄액-쇄		물 흐르는 소 리	갈갈

2) 촉각어

종 류 별	구 역 리 방 언
-------	-----------

시원함 ~ 쌀쌀함	건건하다 건드렁하다 산도록하다 실렵다 설설하다
무더움	무큰무큰하다
미지근함	멘도롱하다

### 3) 미각어

종류별	구역리 방언	종류별	구역리 방언
느끼한 맛	늑늑하다 낄크랑하다	단 맛	돌콤하다 돌다
간이 적당	삼삼하다	떫은 맛	즈롭다 조랍다 트롭다
쓴 맛	쓰우롱 하다		

### 4) 후각어

종류별	구역리 방언	종류별	구역리 방언
고소하다	크송하다 크스롬하다	구린내	*내음살 푸리제왕
(구수하다)	크쌈하다		

### 5) 심각어

유형	구역리 방언	유형	구역리 방언
애 석	느착하다	화 남	부예나다 용심나다
걱 정	즈들다 애돌다	두려움	징징하다 무섭다
흠 족	지꺼지다 코삿하다	혼 미	가메아뜩하다 히여뜩
태 연	심드렁편편 편드롱편드롱	놀 람	금착, 주물락, 줌막, 출락 * 뒗머리 꺼랙이 왕상하다

6) 시각어

계통별	구역리방언
검은색 계통	시거멍하다 거무롱하다 가므롱하다 어득어득하다 까므롱하다 거몰거몰하다 감시롱하다
노란색 계통	노리롱하다 누렁하다 회롱하다
붉은색 계통	발강하다 불그롱하다
파란색 계통	파리롱하다 퍼렁하다 푸리다 포리롱하다
하얀색 계통	허영하다 해양(영)하다 회뜨룩하다 회미롱하다

7.기타

검은색 계통을 조사하다 뱀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뱀의 종류에는 구렁이(시거멍하다), 물뱀(시거멍하다), 셋배염(노랑하다), 말조애미(독다구리-가므롱하다) 등이 있다.

8.제보자 명단

강신원 (남, 60세)	김성은 (여, 75세)
고갑생 (여, 67세)	김양수 (남, 57세)
고정순 (여, 77세)	김원자 (여, 47세)
고임생 (여, 72세)	김정희 (여, 62세)
김경홍 (남, 56세)	문여생 (남, 76세)
양춘옥 (여, 60세)	이전강 (남, 52세)
홍남용 (남, 69세)	

# 信 仰

指導教授 : 許 椿

指導補助 : 문무병, 이완중 김영희

班 員 : 강수일(4), 한입경(3) 강지영(3)  
부유섭(2), 송경미(2), 김영주(2)  
김원훈(2), 송순열(1), 유미연(1)  
김유미(1), 양수민(1), 고인준(1)  
김보영(1), 김정렬(1)

I. 概觀	IV. 個人信仰
II. 公認宗教	V. 巫俗信仰
III. 部落信仰	

## I. 概觀

1992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에서 조사된 신앙에 대한 것이다.

조사는 공인종교, 부락신앙, 무속신앙, 개인신앙으로 나누어 행해졌다. 4.3으

로 소개된 적이 있는 마을이라서 그런지 오랜 동안의 신앙을 유지해 오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조사팀을 경계했다. 그리고, 조사자들의 미숙함과 조사내용의 부실함 등은 이 보고서를 가볍게 하고 있다.

그러나, 九億里라는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 II. 公認宗教

구역리의 공인종교로는 기독교가 있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은 창고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교회조차도 싫어할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보였다. 그것은 지난 1월정도에 이 마을에 있는 할망당이 불질러져서 거의 소실지경에 이르는 일이 있는 후에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교회의 신도들은 성인 즉,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 거의가 어린 이들이고 청소년이 약간명 있을 뿐이었다.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

연혁 : 91년 8월 광주 아멘교회 직원이 마을의 舊會館에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그 후 2-3개월사이에는 신학생을 파병했다. 10월에는 목사가 거주하면서 포교활동을 했다. 92년 3월에는 박성희 전도사가 인수받음으로써 교회목회를 하게 된다.

신평과 구역을 합해서 50명의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큰 교회의 보조금으로 이루어 진다. 중산간의 산간마을로서 친척들로 이루어져서 이동이 거의 없다.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제사문제 등이 전도가 부진한 이유로 알고 있다.

### < 불교 >

절은 없다. 모슬포나 신엄의 절간에 다니고 있다.

< 천지대안교(제보자:김찬수) >

천지대안교를 세운 부경순은 구좌읍 종달리에서 1902년 6월 27일 태어나서 64년 되는 해에 돌아가셨다. 그는 천지대안교를 세운 후에 改名하여 「해월선님」이라 불리 스스로 교주가 되고, 신도안 夫南里에 三合運輸가 오고 三災運輸가 온다 하여 교단을 충남 계룡산으로 옮겨 그 곳을 본산으로 정하고 계룡산 <三神堂>에서 「度數公事」라는 일종의 예배를 보았다.매일 아침 5시~6시까지 단에 청술을 놓고 수양하며 공사는 매월 음력 5일, 15일, 25일 한달에 세번과 3월 15일, 해월선님이 돌아가신 날인 6월 4일, 그리고 나신 날인 6월 27일 등 일년에 세번 대공사를 치룬다.공사를 치를 때의 주문은 “바다했지 해월선님 도술 조화 지하지리 통일통열 물비소시 소원성취”로 28자이며 敎典은 세 運數의 열림을 알린다는 啓運典이다.모든 시설과 기물에는 노란색을 칠하고 있다.이는 하늘은 아버지요,땅은 어머니라는 運法에 기인한 것으로 세상의 근본을 땅인 어머니로 생각하고,땅이 黃土라는 데서 노란색을 중요시한다.신도들은 술과 담배 고기 등을 금기시한다.

신앙에 대한 질서.. 천지 어머님을 영원할 일

나라에 충성할 일

형제간에 화목할 일

예의를 마땅히 지킬 일

빈한한 자를 구제할 일

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두 가지 마음을 먹지말 일

악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멸시키고 어짐을 행

하여 우리 근본을 찾을 일

미신을 영원히 타파할 일

해월선님의 경계 말씀.남의 인권을 뺏지 말 것

남의 후론하지 말 것

남의 모략하지 말 것



시기 투기하지 말 것  
 자기 자칭 하지 말 것  
 내 몸에 사치하지 말 것  
 말소리, 자국소리 높이지 말 것  
 사람의 복은 미신에 있지 않고 말과 예도에 있으니 주의할 것

### Ⅲ. 部落信仰

#### 포제<제보자: 강영화>

포제에 대한 자료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포제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었고, 때문에 祝文이나 忽記도 구할 수가 없었다.포제를 지낼 때 참석했던 몇몇 어른들의 기억력으로 모은 자료를 실기로 한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을의 여러 행사에 주체적으로 지도를 하셨던 어른이 마을에 대하여 적어놓은 포제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그 원문을 그대로 실는다.

「벌제 포제 일년 중 한번을 하는다.

정월리 나면 상괘을 헤서 벌제 제관을 뽑는다.제관은 십칠명이다.초헌 아헌 중헌 엇차 집에 대축 찬자 알자 전사관 현작 전작 전패 현축 전축 봉노 봉합 십칠명을 뽑아놓고 상정일을 택해서 제을 지나는 데 호당 쌀을 받는다.중등 이상은 백미 한되 중등 이하는 소미 한 되을 받는다.바다노은 쌀노 매도 치고 정도 치고 술도 만드는다

되지 닥 생선 각항 과실 폐벽지을 사온다

되지를 사는 데는 누구네집에 술만한 되지가 있다고하면 가서 우리 제청에서 사러 오랏스이 파라주시요하면 주인이 알아서 적당한 금지를 하는다 제관들은 금지를 그대로 주고 사오는다

제관들은 한장소에 모여 일주일을 정성하는 데 삼일안내 들면 하루한번씩 모욕을 하는다 그날이 당하면 집에서 식사를 가져다 주어 먹는 다 제단도 다 청

소하여 황토를 파다가 노는다 제는 태세신위전 이포신위전에 하는 거이다 다음 유월 부종이 굶나면 포제는 하는다 모든 제의는 상동이다 1945년부터는 별포전 느 합하여 정월달에만 하엿다 제건 후도 몇연동안 하다가 중지되엿다.

1) 名稱 : 酬祭(또는 별제)

2) 祭神 : 태세위(테세지신)

유행지위

미포지신(마을귀신)

3) 祭日 : 음력 정월 초순의 丁亥일과 己亥일에 지낸다.

4) 祭場 : 포젯동산 또는 푸리동산(완동산)이라고 칭해지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풀이 무성했다. 그러나, 돌들로 쌓아졌던 제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었다.

5) 祭議管理

① 회소집: 음력 선달에, 덕망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두어 책임자로 해서 회소집을 한다.

② 경비모금: 자진해서 성의껏 낸다.리민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형식을 띠는 것이다.

6) 祭官 : 祭官은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자격: 부락에 공이 있는 자제들로서 회소집을 통해서 선출한다.

② 제관의 종류

初獻官 : 태세위

亞獻官 : 유행지위

終獻官 : 미포지위

밀제관으로 執禮, 大祝, 謁者, 贊者, 典祀官, 奉香, 奉爐 등이 있다.

7) 入祭 : 일주일 전에 합숙소에 모여 합숙한다.일반인들은 祭日 3일 전까지만 정성한 후에 찾아가 볼 수 있다.여자는 식사 제공과 심부름 이외에는 절대 출입이 금지된다.3일 전이 되면 매일 목욕을 하는 등의 정성을 드린다.부정한 것(피를 본다는 등의)을 취하면 안된다.동네에 초상이 났다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祭를 연기한다.상제관은 부인까지도 몸을 청결히 해야한다.그러므로

보통 갱년기에 접어든 시지의 사람을 뽑는다. 祭服은 靑衣와 六巾을 쓴다.

8) 祭物 : 모두 生으로 올린다. 단지, 밥은 익힌다.

① 麥 : 곤메 3위, 조메 3위

② 果類 : 五果를 올린다.

③ 犧牲 : 돼지 한마리(검은 닭 한마리)-모혈감수(毛血甘首): 머리털 3개  
뽑고 器物에 피를 받아서 올림. 배를 네군데 가르고 올림.

④ 祭酒 : 술은 사용하지 않고 生甘酒를 사용한다.

9) 行祭 : 儒數式으로 행해진다.

10) 飲福 : 돼지를 삶아서 나누어 먹는다.

\*\* 사발메가 잘되고 안된 것에 따라 마을의 복을 점치거나, 제사가 끝난 후에 말이나 꿩이 울면吉한 徵兆로 여긴다.

굴제<제보자:강용규(60) 강용련(80)>

구억리는 신평과 더불어 웅기를 구어서 타지에 팔아 그것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굴제를 지내는 시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웅기를 구울 때마다 정성을 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행해졌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적인 제형식을 모두 따르지 않고 생선 구운 것과 곤메 4그릇 술(소주나 청주 등)을 올리고 굴대장(나이 50이상)의 지휘에 따라 굴 3m 뒤에서 제를 지낸다. 금기할 것은 다른 제를 지낼 때와 마찬가지로인데 동네에 출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알면 작은 불을 피워서 웅기를 만들 때는 3일을 연기할 수 있지만 큰 불일 경우에는 연기할 수가 없고 단지, 미역을 빨아서 상불을 올리는 것으로 한다. 축문은 없고 단지, 굴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3배를 해서 끝맺음을 한다. 곤메를 비롯해서 상에 올려졌던 제물들을 참석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음복을 한다.

이 마을에는 굴이 두군데가 있는데 위치한 방향에 따라 동굴과 서굴로 불리워지고 있었고, 잘못된 웅기들을 한곳에 계속해서 버렸기때문에 동산이 생겼다. 이 동산은 '굴동산'이라 불리고, 이곳에 있는 나무는 '굴할망풍낭'이라 불렸다.

#### IV. 個人信仰

구역리의 개인신앙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신제와 칠성제 범위에서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웅기를 만들면서 불을 다루기때문에 불에 관한 다른 신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산신제는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 < 토신제 >

1) 시기: 정월이 나면 인근의 큰 마을에 가서 그곳의 학자들에게 날을 받아온다. 또는 절간에 가서 절간법에 따라 받아오기도 하는데 이 때의 기준은 식구들의 생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성: 3일정성이나 7일정성으로 한다.

3) 금기: 정성기간동안 금줄을 매어서 외부인에게 금기의 뜻을 알리고, 자신도 외출을 삼가한다. 동네에서도 정성을 같이 드리는 것이 작은 마을의 특징인데,개를 잡지 않으며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날을 연기한다. 술도 금한다.

4) 제물: 보통 곤메 2개와 조메 2그릇을 준비하고, 생선과 3과(대추,밤,곶감)를 준비한다.채소는 미나리,콩나물,고사리를 마련한다.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이면 닭고기나 쇠고기 노루고기 등을 마련해서 날것으로 소금에 절여두었다가 올린다.

5) 형식: 동네의 무당을 빌어서 한다거나 스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하는데 토신제만 단독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문전제와 조왕제를 같이 지낸다. 일년동안의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축을 읽고 제를 지낸다. 집안의 깨끗한 곳을 골라서 제를 지내고 난 후에는 음식을 이튿날 동네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 <칠성제 >

칠성제에 대한 자세한 조사내용은 없었다. 왜냐하면 구역리 사람들은 칠성제를 거의 지내지 않기 때문이다. 43 이전에는 지내는 집도 많았는데 43때 피신하고 난 후 동네에 돌아와서는 칠성제는 거의 지내지않는다는 말씀이셨다. 3가 구정도가 지내는 집이 있다 하는데, 2년에 한번씩 칠갈이로 하고 250년된 팽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다른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팽나무 주변에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에 주재기를 마련하고 칠성제를 지낸다. 정월이 되면 새 주재기와 햅쌀을 마련해서 이곳에 와 비념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었다.



## V. 巫俗信仰

堂儀禮 <제보자:고정순(76)본향담당>

구역리에는 本郷堂이 없다. 단지 안성에서 갈라져 온 산짓당과 저지에서 갈라

저 온 당물당과 그리고 개인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도채비발당이 있다. 산  
 짓당과 당물당은 기능적인 면에서 똑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집은 곳의  
 장소에 따라 비념당이 달라진다고 한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당의 기능이나 모  
 시고 있는 신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매희 심방이 없다.  
 “어린아이가 피로우면 당에 가서 자기대로 소지를 사르면서 우리 애기 좋게 해  
 줘. 아이들 연령은 몇 살이우다 하면서 빌면 아이들 어멍이 안심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낫는다고 생각했지.”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이 마을의 당의 기능와 특  
 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산짓당과 당물당이 누군가에 의해 방  
 화되어서 신목들이 불타 있었고, 검게 그을린 당의 흔적이 있었다.

### 1. 산짓당

산짓당은 실제적으로 이 마을의 본향당 구실을 하고 있는 당으로서 구역분교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 1) 堂名 : 산짓당



- 3) 神位 : 할망
- 4) 祭日 : 아무때나 택일해서 간다.
- 5) 神體 : 신목(검목나무)
- 6) 祭物 : 메 3그릇, 떡 3종류, 생선 1마리, 과일 3종류, 소지 5장, 지전, 물  
    씩 3치씩, 실 한가림
- 7) 性別 : 女(할망)
- 8) 機能 : 아기 낳들임, 피부병, 액막이
- 9) 堂 건조 형태: 신목형, 제단형, 폐쇄형, 전담형, 물색 지전형, 석원형
- 10) 단골 : 마을 주민 일부

## 2. 당물당

구역 분교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짓당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위치하고 있다.

- 1) 堂名 : 당물당
- 2) 神名 : 지방털 할망
- 3) 神位 : 할망
- 4) 祭日 : 음력 정월 초이레, 열일레.요즈음에는 추석즈음 해서 가기도 하고  
    택일해서 간다.
- 5) 神體 : 神木
- 6) 祭物 : 산짓당에 갈매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간다.
- 7) 性別 : 女(할망)
- 8) 機能 : 아기 낳들임, 피부병, 액막이
- 9) 堂 건조 형태 : 제단형, 신목형, 지전물색 명실형, 잡목 ning형, 수림간  
    존재형
- 10) 단골 : 마을 주민 일부

## 3. 도체비 발당

이 당은 극히 개인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다.도체비 밭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탓에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는데 神體가 神木과 神穴로 되어 있고, 제단형이고, 전담간존재형, 지전물색형이었다.

\*\* 조사내용이 극히 빈약한 탓에 내용보충을 위해서 산짓당과 당물당 에 관계된 내용을 더 첨가하기로 한다.이 내용은 '대정고을'이라는 책의 신앙편을 참가했다.

동문밭 산짓당...신명은 동문밭 산짓당 일뤼중저로 가는 현감,오는 현감을 맞이 하는 신당이였다.그러나 서문밭당들이 부서져 보성의 일부 주민이 이곳에 다니고 가원당을 또 곁에다 모시기때문에 대정고을 삼본향이 되어 안성,인성,마을 사람들은 물론 보성리 일부 주민들도 다니는 큰 당이 되었다.그러므로 보성리 가원당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 당에 갈 때는 매를 여덟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한다. 보성리의 어느 할머니는 "산짓당에 가젠허민 매도 3기 거령 가는디 6기를 거령 가야되고, 손매(보시매)도 거리민 여덟개씩 해야.산짓당 할망애 가원할망 적시까지"라고 하였다.

본풀이...산짓당은 삼문안에 염색할망 부군할망,구슬 할망, 옥할망 부군할망 상청 할망도 부군할망,예변청할망도 부군할망, 일천석 삼천석 받아오시던 창할망 부군할망, 올라사민 격새할망 부군할망, 노려사민 궁깃할망 부군할망, 신숫할망 부군할망, 옥방하인 삼만관속, 일기생, 일관노에 주내. 고동. 나팔 받아오시던 신전님, 간느 연봉, 오는 연봉 신전 받아오시던 신도 본향한집님

서문밭 컷남밭당...이 당은 청수당 무르 '저지 허릿당'에서 가지 갈라온 당.옛날 현씨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 어디 가서 문점을 하니 당은 모시면 좋겠다 하여 저지 허릿당 축이 ㄹ한집을 모셔왔는디 모셔 오면서 삼형제가 같이 모셔왔다. 그래서 큰 딸을 신평리 일뤼당, 둘째딸은 대정 고을 보성리 '서문밭 컷남밭당', 세째딸은 안덕면 서광리 여드레 할망당이 되었다고 한다. 이 세당 중 신평.일뤼당에는 돼지고기를 쓰지 않고, 컷남밭당과 서광 여드레당은 돼지고기를



사용한다.

본풀이...조수물 상구물에서 대정원님을 도입시킬 적에 부락에 가서 도둑질하여 오랏수다. 옛날 옛적 짐도 이대장적의 '우리가 부하자'고 도둑질 하여다 삼만 관속. 일기성 일팔리 주내 고동 나팔 받아오던 신전님

# 民 謠

指導敎授 : 허남춘

指導補助 : 정용문

班 員 : 강남훈(4), 강경희(3), 김은미(3)

장연심(3), 현은정(3), 성기낭(2)

김목란(2), 문공미(1), 김영혜(1)

## I. 조사경위

## II. 계보자

## III. 노동요

가. 김질매는 소리

나. 그레그는 소리

다. 마당질 소리

라. 부쇠부는 소리

마. 밧불리는 소리

바. 방애소리

사. 시집살이 소리

## IV. 의식요

가. 발인축

나. 달구질 소리

다. 상여소리

라. 질토곳 노래

## V. 타령류

가. 녀영 나영

나. 매화타령

다. 서우갯소리

라. 석탄백석가

마. 아리랑

바. 양산도

사. 잡가

아. 창부타령

자. 청춘가

차. 기타

## VI. 동요

### 1. 전승동요

가. 다리포개어 놀때 부르는 노래

나. 자장가

### 2. 놀이요

가.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나. 팔잇기 노래

다. 머리 짚은 아이 놀리는 노래

라.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마.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사. 기타

### 3. 개사곡

여기에 수록된 민요와 동요들은 1992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에서 현지 조사한 자료이다.

현장론적 방법에 따라 - 조사경위, 제보자, 구연상황, 사실, 주해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택하여 - 조사에 임했지만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본 사실 표기는 제보자들의 발음에 충실했으며 <제주도 표기법 시안>에 준하였다.

## I. 조사 경위

### 제 1 일(7월 31일)

예정보다도 조금 늦은 오전 11시 40분경에 학교버스로 출발하여 12시 40분경에 대정읍 구억리에 도착했다. 숙소인 구억분교는 매우 협소했으나 어린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반별로 짐을 풀고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입소식을 가졌다. 구억분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설촌유래 및 마을현황을 소개받고 곧바로 1차 조사에 들어갔다.

1차 조사는 실제적인 채록보다는 제보자들을 찾아다니며 인사위주의 방문을 하였다. 먼저 사전답사시 추천을 받았던 김정희(여,62세) 할머니댁을 찾았다. 발일 나갔다 돌아오셔서 잠시 쉬고 계신 중이었는데 조사자들의 소리권유에 쑥스러운 듯 아는 것이 없다고 하시며 고정순(여,77세) 할머니와 황보춘 할머니를 추천해 주셨다. 조사자들은 내일 저녁 8시경에 제보자들을 한자리에 모실 계획을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할머니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 제보자를 알아보던 중 마을 어른들로부터 홍남용(남,70세) 할아버지를 추천받았다. 또한 구억 마을에 대한 상세한 내력도 들었다. 그 분들 말씀으론 구억리가 중산간 지대이기 때문에 소리할 여유가 없었다며 다만 하나의 냇두리로 소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추천받은 홍남용 할아버지 댁을 찾았지만, 극구 사양을 하셔서 돌아오던 중 길가에서 마을 어른들과 담소를 나누며 쉬고 계신 이신생(여,82세)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할머니댁으로 가서 '검질매는 소리', '남방에 짙는 소리',

‘그래그는 소리’ 등을 테이프에 담아냈다. 분교에서부터 줄곧 조사자들과 함께 다닌 여섯명의 꼬마들과 더불어 진지함 속에서 소리에 귀 기울였고, 시원한 수박 대접에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저녁식사 이후 조사자들은 지도교수님과 함께 흥남용 할아버지택을 찾았다. 평소 술을 즐기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간단한 안주를 챙기고 찾아뵈었다. 스스럼 없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간간히 흘러 나오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였다. ‘매화타령’, ‘오돌또기’, ‘너영나영’, ‘양산도’, ‘노들강변’ 등의 타령류를 들려주시긴 했으나, 기억력의 감퇴로 끝까지 이으신 곡은 몇 안되었다. 조사자들이 ‘물길소리’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고, 몇몇 민요는 합창을 하는 등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채록이 이루어졌다.

## 제 2 일(8월 1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황순애 아주머니택을 찾았다.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 조사자들을 반가이 맞아 주셨다. 소리를 권하자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사양을 하셨다. 대신 신영옥(여,48세)씨,신창열(여,56세)씨, 김옥순(여,59세)씨와 고태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 조두남(남,54세)씨 등 많은 제보자들을 자상히 추천해 주셨고 더운데 수고한다시며 냉커피를 대접받았다. 나오던 길에 고두남씨 태에 둘러 많은 얘기를 듣고 구억리에 더더욱 친숙해지는 계기를 가졌다.

12시경에 학교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동요 및 놀이요를 채록하였다. 박수진(대정중 3)을 비롯한 일곱명의 아이들이 조사자들과 더불어 고무줄놀이, 줄넘기놀이,손놀이 등을 하면서 동요를 불러 주었으며, 말유희,개사곡 등도 들려주어 놀이요,동요를 다수 채록할 수 있었다.

여린 손으로 땀을 흘리며 열심인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채록을 끝낸 뒤 준비된 점심식사를 같이 나누며 쉬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 뒷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헤어졌다.

저녁 6시경 분교에서 조금 떨어진 상동으로 제보자들을 찾아 나셨다. 추천받았던 제보자들이 모두 풍남 아래에 모여 계셔서 조사자들이 많은 민요를 어렵지 않게 채록할 수 있었다. 강용련 할아버지로부터 ‘무쇠무는 소리’와

'검질매는 소리'를 자세한 상황묘사와 함께 들을 수 있었고, 고정순 할머니로부터 '마당질 소리', '그래그는 소리', '남방애 찡는 소리', '애기 흥그는 소리' 등을 동작 묘사와 함께 들으며 현장감을 맛볼 수 있었다. 고정순 할머니의 두 딸 되시는 신창렬, 신영옥씨 그리고 김옥순씨로 부터 '양산도', '창부타령'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서로 선소리, 후소리를 번갈아가며 하시기도 하고 고정순 할머니는 흥에 못이기신 듯 춤을 덩실덩실 추시기도 했다. 특히 고정순 할머니의 우스개 소리와 악의가 없으신 욕설은 조사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게 했다.

저녁 9시경 이장님, 제보자들을 비롯한 많은 마을 어른들이 학교로 오셨다. 생각외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치 마을 잔치를 치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조출한 다과와 함께 마을 어른들, 조사자들이 한데 어울려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진사대 소리', '쫄른 사대소리', '뱃볼리는 소리', '애그 흥그는 소리', '서우젓소리', '시집갈이 노래', '남방애 찡는 소리', '회심곡', '공비토벌가', '남아 20년', '양산도', '너영나영', '석탑백석가', '청춘가', '사발가' 등을 우리는 아주 다양한 소리로 채록했다. 두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을 어른들께는 좀처럼 마련할 수 없었던 흥겨운 자리가 되어 조사자들은 하견같이 뿌듯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 제 3 일(8월 2일)

양일 간에 채록한 소리들을 들으며 가사 정리를 했다. 미진한 점, 불확실한 점들을 찾아 재조사를 위한 준비도 했다.

늦은 저녁시간에는 마을 어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전체 자리에 참석하여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민요의 채록도 놓치지 않았다. 마을 어른들과의 만남을 못내 아쉬워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 제 4 일(8월 3일)

조사 중에 미처 찍지 못했던 제보자들의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제보자들에 감사의 마음과 작은 성의를 전했다. 짐정리 및 마무리 정리를 하고 난 후 기

넘사진 촬영을 하고, 3박 4일의 여정을 마치며 情의 마을, 구억리를 떠나왔다.

### 재조사의 날(8월 13일)

가사 정리를 하던 중 의미파악이 모호한 부분과 미진함을 보충하고, 민요반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재조사를 떠났다. 늦은 5시에 미리 연락을 드렸던 고정순 할머니 댁을 들러 미진함을 채우고 난 후 황보춘 할머니댁을 방문했으나, 집안의 큰 일들과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채록은 못하고 돌아왔다. 다음으로 김정희 할머니댁을 찾았다. 새로이 '사발가'를 채록할 수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달구소리'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수확이라 할 수 있었다.

상동으로 돌아와 할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저녁상을 깨끗이 비우고는 풍낭 아래로 가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미진함을 보충했다. 상동에서의 밤은 풍낭 아래 들리는 가을의 소리와 더불어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린 채 흘러갔다.

## II. 제보자

### [제보자 1]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이신생 (여, 82세)



1차 조사시 제보자들을 찾아 다니던 중 길에서 우연히 뵈 이신생 할머니는 대정골 인성에서 출생하여 열 여덟 살에 이곳 구억리로 시집오셔서 지금은 아드님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오붓이 살고 계셨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매일같이 밭일을 나가신다는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목병이 생기셔서 고생을

하신다고 했다. 유난히 눈물이 많이 고인 할머니의 눈은 살아온 생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 듯했다.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정정하셔서 다수의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사데소리', '남방애 짙는 소리', '그래그는 소리'와 '노들강변' 등을 들려 주셨고 노래가사에 실린 의미까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줄곧 조사자들과 함께 다니던 여섯 명의 꼬마들과 조사자들에게 알사탕을 쥐어주시는 등 친손녀들을 대하듯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제보자료] III-가-1, III-바-3, III-나-2, VI-가-1

[제보자 2]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홍 남 용 ( 남, 70세 )

구억리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의 많은 추천으로 찾아뵈었던 홍남용 할아버지는 조사자들이 처음 찾아갔을 때, 옛날엔 명창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으나 지금은 모두 잊어버려서 못한다고 하시며 사절을 하셨다.

저녁때쯤, 술을 즐기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찾아뵈었다. 사대제 구억리에 살고 계신다는 할아버지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모두 외지로 출가시키고 할머니는 병환 중이라 혼자 계셔서 적적해 하시는 듯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반백발의 차분한 모습이 조사자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애주가답게 술 한 잔을 하고 나서야 소리가 나올 듯하여 교수님이 술을 권하기도 했다. 조사자들이 먼저 '물질소리'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산촌에서 물질하는 소리가 웬말이냐고 하셔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매화타령', '오돌또기', '너영나영', '양산도', '애기 흥그는 소리', 등 다수의 소리들을 채록하긴 했으나, 끝까지 이으신 곡은 몇 안되었다. 기억이 난다면 모두 불러주고 싶지만 술로 인한 기억력의 쇠퇴로 못 불러주는 게 안타깝다고 하시며 줄곧 미안해 하셨다. 위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술이 약이라며 약 대

신 술로 병을 달래시는 할아버지는 조사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 제주도 민요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료] V-가-2, V-마-1, V-바-1, V-바-2, V-나-1

[제보자 3]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  
고 정 순 ( 여, 77세 )



사전답사시 이장님의 추천과 많은 분들의 권유로 알게 된 고정순 할머니는 조사자들이 상동에 있는 제보자들을 뵈러 갔을 때 풍낭 아래서 마을 분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따님 두 분과 함께 상동에 살고 계신 할머니는 호탕한 성품과 행동과다운 적극성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다른 분들이 소리를 하도록 유도하시기도 하고, 흥겨운 가락에 어깨를 들썩이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기도 했으며, 각 소리들마다의 상황묘사를 그럴듯하게 표현해 주셔서 현장감을 맛볼 수 있었다. 북어채를 부러질 듯 두드리시며 들려주시던 '마당질 소리'며 맷돌 돌리는 동작을 취하시며 들려주시던 '그래그는 소리', 방석을 집어 흔들며 '고만 걸러정 자라'는 말로 맷으시던 '애그 흥그는 소리' 등은 일초도 눈과 귀를 땔 수 없게 했다. 또한 언거푸 뿔어내시는 우스개 소리와 악의없는 욕설이 더더욱 친근감을 갖게 했다.

두 따님이 부르는 '창부타령', '양산도' 가락에 맞춰 추시던 춤춤씨는 노래춤씨 만큼이나 일품이었다. 조사자들에게 신랄한 욕설을 서슴지 않으시면서 연신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써 보여주셨던 분으로 기억된다. 위의 노래 외에 '남방애 짙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등 다수의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제보자료] Ⅲ-가-3, Ⅲ-가-4, Ⅲ-나-1, Ⅲ-다-1, Ⅲ-마-2,  
Ⅲ-바-1, Ⅲ-사-1, VI-가-2, VI-나

[제보자 4]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김정희 (여, 62세)



사전답사시 이장님의 추천을 받아 1차 조사시 처음으로 찾아 뵈었던 분으로 마을에선 춘심이며머니로 통했다. 검질매고 돌아오셔서 잠시 쉬고 계시던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정한 모습을 지니셨다.

예전엔 밭일하면서 소리도 곧잘하곤 했지만 요즘은 부를 기회가 없으니 아는 것이 없다시며 처음엔 거절하셨다. 하지만, 이튿날 제보자들을 한데 모신 자리에선 소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다. 좋은 목청을 갖고 계신 만큼이나 다양한 소리들을 알고 계셨다. '진사데', '쫓른 사데', '밭불리는 소리', '서우젓 소리', '무쇠무는 소리', '회심곡', '청춘가' 등 다수의 노래를 채록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우젓소리'로 상을 타신 경력도 있을 만큼 소리를 잘 하셨다. 즉흥적인 개사력도 뛰어나셔서 분위기에 맞는 개사를 하면서 부르시기도 하셨다.

[제보자료] Ⅲ-가-2, Ⅲ-가 4, Ⅲ-다-1, Ⅲ-라-1, Ⅲ-마-1,  
Ⅲ-사-1, IV-다-2, V-가-1, V-다-1, V-바-1,  
V-사-1, V-자-1, V-차-1, V-차-4

[제보자 5]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강 용 련 ( 남 78세 )



상동을 찾아 갔을 때, 고정순 할머니외에 여러분들과 풍낭 아래서 쉬고 계셨던 할아버지는 소리보다는 상황묘사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다. 고정순 할머니와 선소리, 후소리를 번갈아가며 '무쇠망는 소리', '사데소리'를 불러 주셨고, 제보자들이 부르다가 빠진 부분을 자세히 보충해 주시기도 했다. 소리 잘하는 친구 두 분이 먼저 작고했다며 못내 아쉬워하기도 하셨다. '달구소리'도 흥남용 할아버지의 훗소리와 더불어 약간 선보이기도 하셨다.

[제보자료] Ⅲ-가-3, Ⅲ-마-2,Ⅳ-나-1, Ⅳ-라-1

[제보자 6]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김 옥 순 ( 여, 59세 )



상동에서 만나 빈 분들 중 한 분으로 금희어머니로 통했다. '양산도'를 만나게 불러 주시기도 하고, 유행가라 하시며 '아버이 사랑'을 들려주시기도 했다. 또한 마을 어른들과 함께 분교로 오셔서 '진사데', '쫓른사데', '마당질소리', '회심곡' 등의 훗소리를 넣어 주셨으며 '공비토벌가'라는 애절한

노래를 불러 주시기도 했다. 또한 '그래그는 소리'는 실제로 그래를 갈면서 불러야 제대로 소리가 나오신다며 그래그는 동작을 보이시며 들려주시는 적극성도 보이셨다.

[제보자료] III-가-2, III-가-4, III-바-2, IV-다-2, V-다-1,  
V-바-1, V-바-3, V-아-1, V-차-2, V-차-3

[제보자 7]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신 창 렬 (여, 56세)



고정순 할머니의 따님 중 한 분으로 상동 풍낭 아래서 처음 뵈신 분이다. 신영옥씨가 함께 '창부타령'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불러 주셨고, '양산도' 또한 흥겹게 부르셨다. 조사자들이 재조사를 위해 상동을 찾았을 때도 변함없는 따뜻함으로 맞아 주셨고,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제보자료] III-가-2, III-가-4, V-아-1

[제보자 8]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강 창 언 (남, 54세)

구억리 이장님으로 예비조사 때부터 학술조사가 끝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다. 직접 제보자집에 함께 가주시기도 하고, 동네 분들을 모시기로 한 날

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모셔오기도 하셨다. 이장님답게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직접 소리도 하시는 열정을 보이셨다. '석탄백석가'와 '상여소리'를 짧게 불러주셨다.

[제보자료] IV-다-1, V-라-1



[제보자 9]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신 영 옥 (여, 48세)

고정순 할머니의 따님 중 한 분으로 역시 상동 풍남 아래서 처음 뵈었다. 문준 어머니로 통했으며, '양산도', '창부타령' 등을 들려 주셨다. 또한 분교에 오셔서는 김옥순씨와 함께 '쫓른사데', '서우젯소리', '회심곡' 등에 훗소리를 넣어 주시기도 했다.

[제보자료] I-가-2, III-가-4, V-아-1

### III. 노동요

#### 가-1 검질 매는 소리

어기너어라	사데로구나
사데구럴은	요걸 매어나보자
어기허어라	또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제보자:이신생 1992.7.31일)

가-2 검질매는 소리

A : 앞명에랑	나고가라	B : 앞명에랑	나고 가라
선소리랑	긋은정 망정	선소리랑	허난 망정
훗소리랑	크진크듯	훗소리랑	크진크듯
나놀래랑	산넘어가라	나놀래랑	산넘어가라
검질바틴	윤올내어	검질바틴	윤올내어
어찌허연	요검질 매여건	어찌허연	요검질매건
검질나건	매어나두건	검질나건	매어나두건
검질이랑	매어나두고	검질이랑	매어나두고
낭이랑 나건	구리대같이	낭이랑 나건	구래대같이 <sup>1)</sup>
여름일랑열건	쇠여름같이	여름일랑열건	쇠여름같이 <sup>2)</sup>
지치구나 딱	지치구나	지치구나	딱 지치구나
우리어명	날날적에	우리어명	날날적에
요런 일울	마련하고 난가	요런 일울	마련하고 난가
지치구나	저치구나	지치구나	저치구나
그만그만	불러나 봅시다	그만저만	불러나 봅시다

(제보자:A-김정희(여,62세) B-신영옥(여,48세))

구연상황 : 구역리 소리꾼으로 하동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가 선소리를 하시자 상동에 사시는 김옥순씨와 신영옥씨께서 훗소리를 하셨는데 분위기에 맞게 노랫말을 바꿔서 부르시기도 하셨다. 지치셨는지 “딱 지치구나”라는 사실을 담아 놓고 끝날 때쯤에는 ‘그만저만 불

1) 나무이름    2) 잘 여물다

러나 뽀시다' 라는 노랫말로 자연스럽게 끝나치셨다.

가-3 검질매는 소리

A: 검질짓꼭 굴라진 발에                      B: 아 -- 하야 에헤에이요  
     좋은 데로나 여의명까자                    아 -- 하야 에헤에이요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아 -- 하야 에헤에이요(잘현다)  
     뒷명에랑 물러나가라                        아 -- 하야 에헤에이요  
     앞이보난 끈아장아전                        아 -- 하야 에헤에이요  
     눈은 치민 손은치민 놈이나안다            눈은 치민 놈이나 모른다.

(제보자: A: 고정순(여,77세) B: 강용련(남) 1992.8.1일)

가-4 검질매는 소리

A: 어-허-어-어허-허허러-렁 사데  
B: 사데- 에헤헤 에- 헤 헤이요- 랑-  
A: 어-야-어허-허-허-허-어-허-허-허영 사데  
B: 에헤- 야- 허-  
A: 사데- 에헤 에헤-요- 뽀사데  
B: 사데-에헤- 에헤이요랑 사데

(제보자: A:김정희 B:고정순 김옥순 신영옥 1992.8.1일)

구연상황 : 목청을 가다듬으시며 길게 소리를 빼는 할머니의 모습은 아주 진지하셨습니다. 훗소리는 여러분들이 번갈아 도와주셨습니다.

나-1 노래는 소리

나-놀래쿨 -                      산넘영 가라아  
나-놀래쿨 -                      물넘영 가라아

물도산도	못넘으어허허
요집올래도	뒤넘엉간다.
살아오라	도리는 짚은-
귀막앙 삼년	눈어두왕 삼년
연 삼년은	살아가랜현
말도 들어야 한다.	
요집이-	두서울랑심고
쓰나되나	어-뱃보리사난
똥은 올민 -	날이나샌다
내사올영	그- 어느날 새랴

(제보자: 고정순 1992.8.1일)

구연상황: 땃돌 돌리는 시늬를 하시며 현장감있게 부르셨다.

#### 나-2 그래그는 소리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동 소리허민  
 소백지 대백지 지여내영  
 이천 선배들 글밭에나 놀라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 이여 이여 허민  
 눈물이 난다  
 어멍보민 그롤말 한다.  
 어멍보민 질로나가자

(제보자 : 이신생 1992. 7.31일)

#### 다-1 마당질 소리

A: 어야홍	B: 어야홍
어야홍아	어야홍아
요디저디	요디저디
때려보자	때려보자
요거저거	요거저거
진곡이여	쫓아들멍
때려보자	때려보자
어야홍	어야홍
도깨아들이	도깨아들이
채여지개	채여지개
신문지라도	신문지라도
어야도홍아	어야도홍아
어야홍	어야홍
요디저디	요디저디
때려보자	때려보자
요거저거	요거저거
진곡이여	진곡이여
그만헉켜	그만헉켜

(제보자 : A- 고정순 B: 김정희 외 1992.8.1일)

구연상황 : 안주로 쓸 북어채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하셨는데 북어채가 동강  
나니 신문지를 들들 말아서 실감있게 부르셨다.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과 조사자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라-1 무쇠뚝는 소리

이러이러이러어-  
요쇠저쇠 걸어보라



이러이러 이러이러

(제보자: 김정희 1992.8.1일)

구연상황 : 소리를 끝마칠 쯤 “야아 어디로 감시냐 와썩 후려봅니다”라며 소리의 분위기를 돌구셨다.

마-1 밧볼리는 소리

이러이러 ----- 라 어 - 허 - 러러러러러 뎡뎡뎡뎡(웃음)  
 요뎡생이 저뎡생이 돌아오라- 어- 허- 허- 러러러러러 러려-  
 요산중에 저산중에 놀던 무쇠돌아 걸어보라  
 로로로로 - 허어- 로로로로어 로로로로 (잘한다 웃으며)들들들들  
 요뎡생이 저뎡생이 걸어보라 높은디랑 디디명 사곡  
 차곡차곡 걸어보라 어허어- 로로로로- 어 로로로로  
 낭이랑 나건 구리대가 뭐나게 허고 여름이랑 열건 쇠여름 7치  
 열리거라. 요뎡생이 저뎡생이 닭은 뎡새이들령 아- 허  
 료료료료 료료료료어 로로로로-  
 나소리랑 하늘넘어 가는구나 줄을 넘어 가는구나  
 요뎡생이 돌아 요소리들엉 팽팽 돌아오라  
 료로로로로로로로 어허- 로로로로 어 로로로 -

(제보자 : 김정희 1992.8.1일 )

구연상황 : 구역리 소리꾼답게 잘 부르셔서 동네분들이 ‘잘한다’라고 칭찬하 시자 더욱 흥이 나시는듯 끝까지 부르셨다.

마-2 밧볼리는 소리

어허- 어러러러어- 어러러러러러호호 호-이  
 요뎡생이 저뎡생이 한걸이 지친기랑 전해도말라 어허허-

뚝드리멍 슴드리멍 어허 호호호이  
 어러러러- 호호 호호호이 (몽생이 도망가는 거 있잖으파)  
 요몽생이 저몽생이 어드레 감시니 이히이-  
 선머리 끄는남 돌아오라 요 몽생이들아  
 오로로로로 호 호호호이  
 요몽새이들 한저 헛 자국 시디지말앙 조근조근  
 높은디만 불른아가라 어허-  
 어러러러어 오호호- 러러러러 어어허  
 (제보자 : 강용련, 고정순 1992.8.1일)

구연상황 : 강용련 할아버지가 조금 부르셨는데 '잡소리는 허지 말렌 허난'  
 하시며 나중에 고정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뺏기셨다.

바-1 방애소리

어여이여	이여동허라
이여말란	말아근가라(으흠)
가시오름	강당장침애
시쿨니쿨	다섯물방애
새글럼서라(으흠)	
팔제구진	요년은 가난
시쿨니쿨	다섯물방애
오동동이	채맞아온다.(으흠)

(제보자 고정순 1992. 8.1일)

구연상황 : 주먹으로 땅바닥을 짚으시며 입술을 꼭 깨물고 '으흠'에 힘을 주  
 시며 실감있게 부르셨다.

바-2 방애소리

이여이여 어- 이여- 동- 허라  
이여 -어말앙 어허 -허 말앙가라

(제보자: 김옥순 1992. 8.1일)

바-3 남방애소리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이여 이연말라  
탈고나가라  
이여이여 이영허민 눈물이 난다  
어멍보민 그를 말 한다  
어멍어슨 질로 나가자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산수 구경 구월에 나민  
구네꽃도 나부끼더라

(제보자: 이신생 1992.7.31일)

구연상황: 예전엔 구월에 나면 팔자가 세다하여 혼자 살라고 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조사자들이 모두 웃었다.

사-1 시집살이 노래

성님성님 스촌성님	시집살이 어뭇데가
야야 말도말라	애기도 말라
암뽕그튼 시어명에	장뽕그튼 시아방에
도깨비달은 시누이에	물구렁달은 서방놈에
살전이 고생이여	죽젠허니 청춘사
어- 해- 나가돈다	

성님성님 고생이여	죽젠허니 청춘사
애- 해- 나가돈다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떡태가
아이고 말해도	이물거나
장뽕그튼 시아방에	암뽕그튼 시어멍에
준작3)그튼 시누이에	족제비그튼 시아주방에
물구렁그튼 서방님에	살자허니 고생이라

(제보자: 고정순, 김정희 1992.8.1일)

구연상황 : 구역리 소리꾼인 고정순, 김정희 할머니가 부르셨는데 먼저 고정순 할머니가 부르시다가 김정희 할머니께서 이어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고정순 할머니가 흥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 IV. 의식요

##### 가 발인축

세상천지 개벽하니 풍속법 이러난다  
 자고이래 위친구산은 선님부귀 영화로다  
 우리조선 팔도강산 역역히 돌아보니  
 골육산 대걸용은 황여수에 세류하고  
 백두산 중조봉은 암속강이 들어있고  
 함경도 대파역은 성대산이 들어있고  
 평안도 자모산은 수양산이 호웅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건지산이 동복이요

---

3) 새의 일종, 개구리가 늙어서 된다는 것. 사람을 잘 속여서 시누이에 비유

강원도 금강산은 장벽산이 들어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이 들어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들어있고  
 충청도 계백산은 백마강이 들어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용림수가 들어있고  
 목포에 유달산은 강해남이 들어있고  
 제주도 한라산은 사면바다 들어있고  
 요산천 돌아다보니 좌청용 우백호로다  
 손신봉이 상대하니 문자급제 연출이요  
 병정봉이 고소하니 만중록이 일어난다  
 입수명당 분양하니 맥분명이 정혈이요  
 주마산이 단정하니 효자출여 열녀로다  
 전태봉이 상대하니 만연장수 지지로다  
 (후렴 :애해 달구)

나-1 달구질소리

어허- 달구  
 이허리리 들허달구  
 삼십번체 들허달구  
 애해- 달구  
 좌우청룡을 살펴보니  
 달- 구  
 어- 허 아들주손은 소저로다  
 (청취불능) 열해도 낱고  
 애해- 달- 구  
 천태나태 살울지곤  
 석가여래 달려지고 흡시다

(제보자: 강용련 1992.8.1일)

다-1 상여소리

오- 호- 오- 오- 호-

(제보자:강창언 1992.8.1일)

다-2 회심곡

A: 어-허 능창 고래로다  
 대문안에 밝인 저승이라  
 어 - 허 능창 그래로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공동산천 나는 간다  
 고사리 단풍 흔들러  
 날도 좋고 달도 좋다  
 어허능창 그래로다  
 한번 낡고 한번 죽영  
 어허 능창 그래로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이싱질을 버려두고

B: 어 - 허 능창 그래로다  
 대문밖인 저승이라  
 어 - 허 능창 그래로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공동산천 나는 간다  
 고사리 단풍 흔들러  
 날도 좋고 달도 좋다  
 어허 능창 그래로다  
 한번낡고 한번죽영  
 어허능창 그래로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이싱질을 버려두고

(A: 김정희 B: 김옥순 1992.8.1일)

구연상황: 회심곡에 대하여 여쭙자 회심곡은 상여소리 한소리의 반복이라고 하시면서 노랫말이 있는 것을 '회심곡'이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라-1 질토굿 노래

질토굿 서늘에도 - 야야 열심히 질토굿을 돌립시다  
 질토굿을 돌립시다

에헤- 헤- 어- 흡시다

(제보자: 강용련 1992.8.1일)

## V.타령류

### 가-1 너영나영

- ① 너영난영 두리동실난영 낮이나 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저달은 등등떠 산넘어가고요 요내몸 언제면 물넘영가라
- ② 너영난영 두리동실난영 낮이나 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밤중에 우는 새는 임그려 울고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운다.
- ③ 너영난영 두리동실난영 낮이나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청천하늘엔 큰별도 많구요 이내 가슴에는 자수심도 많구요

(제보자:김정희 1992.8.1일)

구연상황: 노래를 아는 사람이 많아서 흥에 겨운 나머지 어우러져 어깨춤을 추셨다.

### 가-2 너영나영

내영 나영 두리동실 난영  
낮이나 밤이나 밤이 밤마다 상사랑이로구나  
오라고 하는 데는 밤이 밤봉 가고요  
동네에 술집은 대낮에 간다.

(제보자: 홍남용 1992.7.31일)

구연상황: 흥이 난듯 다리를 두드리면서 부르셨는데 가사를 잊어버렸다면서 중도에서 그만 두셨다.

나-1 매화타령

좋구나 매화로다  
 예야 데야 어허야  
 어러이 이여로 사랑도 매화로다  
 인간이별 많거중에 독수공방이 상거-  
 좋구나 매화로다  
 예야데야 어허야  
 에헤야이여로 사랑도 매화로구나  
 안방건너 방가로 나가 국화색이매 한자문이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데야 어허야  
 어러이 이여로 사랑도 매화로다  
 어젯게 밤에도 구경허고  
 오늘밤  
 어젯게 밤에도 나가자고

(제보자: 홍남용 1992.7.31일)

구연상황: 옛날에는 잘 불렀는데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시며 검붉은 얼굴에 미소만 띠었다.

다-1 서우젯 소리

A: 몇네 몇네 봄에 산에 몇네  
 민망구튼 도복을 입고  
 명망구튼 버선을 신고  
 몇네몇네 한라산 떠는 구나  
 몇네 몇네 삼방산이 띄구나

B: 아- 양 어허- 양 -헤이요  
 아- 양 헤이요  
 아- 양 에헤야 에헤야  
 아- 양  
 아 - 양



우리인생 허허 혼변나고	아 - 양
혼변가고 혼변가면 메기로드	아 - 양
사람이 살젠 후면 몇백년이나 살소나	아-
살져살져 허당보민	아- 양
병이들면 못사는 거로구나	아- 양
바농 7치 가는 몸애	아- 양
태산 7튼 병이 들고	아- 양
부르는건 엄마로구나	아- 양
찾는 것은 찬냉수로구나	아 - 양
어찌허영 요뽕구환 허영	아 - 양
살젠허영으네 못살아지구나	아 - 양

( 제보자 : A:김정희 B:김옥순 1992. 8. 1일 )

구연상황 : 아주 긴 사설을 부르셔서 마지막에는 '아이고 못허켜 지천' 이라는 말로 끝을 맺으셨다.

#### 라-1 석탄백탄가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배벌생 나고요  
 요내 간장 타는데  
 연기도 짐도 안나노라 예- (아이고 못허켜)

( 제보자 : 강창언 1992. 8. 1일 )

구연상황 : 잊어버린신 듯 끝까지 부르시지 못하셨다.

#### 마-1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제보자 : 홍남용 1992.7.31일)

#### 바-1 양산도

에헤에- 이요-으 노자 좋구나 저리나 젊언 놀앙  
늙고야 병이 들면 아니 못노리로구나  
세월 세월아 내월내월아 두고 가지를 말어영  
잡았다 훌묵이 쑥빠져도 아니 못노리라  
에헤에 - 이요- 뒷동산에 할아버지도 늙으나  
젊으나 꼬부라진다.  
세월세월아 내월내월아 두고 가지를 말영  
에헤에이요 노새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놀오계로다  
이화라 놓아라 아니 못놀이로 늙기를 하여도 못놀이라(반읍씨)  
에헤이요-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은데 요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세월세월아 내월내월아 두고 가지를 말-아-  
에헤이요- 양도맹산 흐르는 물은 감도라-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왔다가지를 말어  
아까운 청춘이 다늙어간다. 에헤이요-

(제보자: 김정희 홍남용 김옥순 1992.8.1일)

구연상황: 김정희 할머니, 홍남용 할아버지, 김옥순씨가 이어서 소리를 하셨는데 '반읍씨'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어 부르셨다.

#### 바-2 양산도

에헤이요- 양도맹산 흐르고 나리는 물에

(제보자: 홍남용 1992.7.31일)

바-3 양산도

에헤에이-요 눕시다 저리고 쬐어 놀아  
늪어서 병만 들면 아이고 못노리로구나  
세월 세월아 봄아봄철아 왔다가지를 말어  
아깝다 요청춘 다 늪어진다.

에헤에이-요

초생광 지는 해는 지고나 싶어서 지고  
날버리고 갔던 념은 가고싶어 간다.

아서 아서라 말을 말어라 아니도 못노리로라

에헤에이-요

양도맹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든다하구 무병이로구나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다 늪어진다.

에헤에이-요

눕시다 좋구나 저리고 쬐어 놀아  
늪어서 병글면 못노리로구나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왔다가지를 말어  
쬐었던 청춘도 다 늪어간다

(제보자: 신창렬, 김옥순 1992.8.1일)

사-1 잡가

닐 에리고 절싸 말도말라  
사랑도 수심간장 예로아 다 녹아간다  
닐- 닐- 닐에리고 절싸 말도말라  
사랑에 수심간장 예로아 다 녹아간다  
물 좋고 낭 좋고 각기눔성의

꽃삭밭이 날뛰는 신작로에 법환<sup>4)</sup>에  
하안택시 하이안 법환에 가네모찌  
닐닐이리절싸 말도말라  
하이까라만 놀고 사가리 마당에는  
엘라 순사만 오누나

(제보자 : 김정희 1992. 8.1일)

#### 아-1 창부타령

심오야 명산 만난 중에  
바람이 분다고 쓰러지나  
송죽같이 굳은 마음  
매맞는다고나 허락허나  
몸은 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변할쏘나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달만 뜨거든 단 둘이 가자  
아니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저자 중은 초면인데  
인사말없이 노십니다  
잘허였으나 못허였으나  
천만용서를 받아주소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허리라  
콩콩짓는 저복소리  
태평양 바다를 자랑하고  
피리단장 돛새소리

---

4) 한복판

솔나무 간장만 영늑인다  
얼씨구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아이구 좋다)

한강바당 배질하긴  
깊음얕음을 알건마는  
한집살이 이무슴물라  
간장타는 여자로다  
얼씨구 정말로 좋아  
아니노지는 못허리라  
저고리에  
영세도장을 찍어놓고  
네탓이나 내탓이나  
소나무닷으로 집어낸다  
얼씨구 정말로 좋네  
아니 놀앙은 못허리

나도야 널민고 못살사정  
너도 날민고 못살사정  
없는금전 한탄을 말고  
깊이든 정을 변치마소  
얼씨구 좋다 절씨구나  
아니놀고서 무얼허리

( 제보자 : 신창렬, 신영옥, 김옥순 1992. 8. 1일 )

구연상황 : 창부타령을 처음 신창렬씨가 한 수 뽑자 신영옥, 김옥순씨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부르셨다.

자-1 청춘가

청천하늘에 존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 (좋다) 수심도 많더라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이나 살리  
막상에 살아야 (좋다) 단 팔십 더 살라  
(제보자: 김정희 1992.8.1일)

#### 차-1 남아 20년

남아 20세에 꽃이 피는 이 가슴 내일은 싸움터로 찾아갈테야  
안해요 보세요 이 세상에 사세요 당신과 만난것은 백년 살자고  
지금은 당신과 이별가를 합창하고 있지만 꽃다운 안해 어제나보라  
38선을 돌파하여 태극기를 날리며 죽어서 백골이나 돌아오리라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총소리 나는 곳에 나는 갑니다  
(거꾸로 하염찌)  
38선을 돌파하여 태극기를 날리며 죽어서 백골이나 받아오리라  
피물은 허리띠를 5일주상중하오니 이 자식 보다시피 받아주소서  
(제보자: 김정희 1992.8.1일 )

#### 차-2 예정 36년까지

대동 36년간도 피로-왔구나 해방된 오늘날도 피로왔구나  
미소양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삼천만이 싫어하는 38선이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38선장백 이복에 계신 어머니도 오늘밤에는  
저달보고 눈물로써 밤을 새우니 남한에 있는 부모형제 안심합소서  
(제보자 : 김옥순 1992.8.1일 )

구연상황: 부끄러우신 듯 실례해수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손을 모으신 채 끝

---

5) 아들이 죽음을 알리는 표시로 알아달라는 말

내렸다.

차-3 공비토벌가

공비토벌로 떠난 이내 몸은  
태백산과 함백산에서  
숲속을 집을 삼아  
이슬비 맞아가며 내고향 꿈을 꾸니  
미련없는 가을 내얼굴 잊혀주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십니까  
오늘도 38선에서 공비와 싸웁니다.  
공비간 곳마다 찾아서 싸운 소식을  
바라가는 기러기야 전해줘 영자에게  
(제보자: 김옥순 1992.8.1일)

차-4

(청취불능)

애- 살아실 때 죽을실 땐 못노리다  
사랑사랑 줌진사랑 줍쌀기치나 줌진사랑  
사랑사랑 굳은사랑 전봇대같이나 좋은사랑  
사랑사랑 굳은사랑 신작로같이나 온근사랑  
사랑사랑 깊은사랑 바닷물같이나 좋은사랑  
이사랑저사랑 다버려두고 공동삼천리 여행한다  
널리리리널리리리- 이야노 얼씨구 내가 돌아간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나 좋네 아니아니는 못하리라  
살구도고 홀로싫어 살구도고나 홀로싫어  
요런 선생님들과 앓앙으네 노래를 불러도  
불러보고 밝으면 골괘이를 재고 일만허래 댕기는데

요런 세상 요런자리에 이렇게 기쁨이 어디시라

(제보자 : 김정희 1992.8.1일)

구연상황 : 분위기에 맞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셨는데 노동요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

## VI.동요

### 1.전승동요

가-1 다리 포개어 놀 때 부르는 노래

개천 원영 범어 자동에 취

(제보자 : 이신생 1992.7.31일)

가-2 다리 포개어 놀 때 부르는 노래

한다리 한다리 거천개

수녀 오녀 버문개

어- 어- 장장

오나 도라 절강

굴감 새쿨

(제보자 : 고정순 1992.7.31일)

구연상황 : 동작을 다리로 직접하시면서 소리를 하셨다.

나-1 자장가



자랑자랑 똥이 자랑  
똥이 자랑 똥이 자랑  
할머님이 이주손들  
불똥 7치 둘러잡앙  
만리성도 둘러줍써  
수덕좋은 할마님  
아자도 천릴보고  
할마님 자손

공이들고 지가들어 키웁내다  
신을 삼아 받칠수가 있습내다  
천금에도 증헌주손  
높은남기 꽃벼리듯  
하다 이주손들  
미리 너벅지신 견어줍써  
(칭취불능)

명과 복을 지켜줍써  
곱쌀이도 나도웁써  
허실말 아님니까  
동짓선들 견어줍써  
(칭취불능)

새애랑 새걸리  
양단어깨 수문징  
늑막엽 북막엽  
열징 하징  
이주손 물외키우듯  
동지너물 키우듯

어진 할망주손  
(아이구 졸압다)  
그놀라건 똥이점에  
천리성도 둘러줍써 (고만허 농자라)  
만인이 등극종고  
소문나고 거민하신 할마님  
시도 만릴보는

내우려 키우져 허민  
애기어멍 지금 머릴 벗어다가  
할마님이 이주손들  
만금에도 증헌주손  
하- 신 이주손들  
몸에라건 물질이랑  
곱불손 행굴손 돌림썩당

뻘뻘이도 나도웁써  
높은남기 꽃벼리듯  
이주손 머리에당  
눈에랑 걸렁쇠

목애 7튼 빙산징  
대당뽕당 강장엽  
더운징 다른징  
모두 걸엄으네  
참외키우듯  
키와줍써 (고만 걸러징 자라)

(제보자 : 고정순 1992.8.1일)

구연상황 : 방석을 접고는 흔드시는 시늉을 하시며 진짜 아기를 재우는 것처럼 간간히 말을 집어넣으시곤 하여 조사자들과 마을 주민들을 웃기기도 하였다.

## 2. 놀이요

### 가-1 고무줄할 때 부르는 노래

하나 둘 셋 넷-

구연상황 :세 명의 아이가 삼각형을 만들어 뛰면서 하는 놀이로 각기 육십외에 각기 삼십과 각기 백이십도 있다 한다. 각기 육십은 열번 째까지는 옆으로 뛰고 스무번 째까지는 돌면서 뛰고 삼십번 째는 다리를 엇갈려서 뛰며 사십번 째는 엇갈리며 돌면서 뛴다. 오십번 째는 엇갈려서 앞으로 뛴다. 육십번 째는 처음으로 돌아온다

### 가-2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어디어디어디 가왔나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엄마따라 가왔지

### 가 -3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가방 메고서 어디가세요  
큰가방 속에는 편지편지 들었죠  
아저씨 아저씨 고맙습니다.

### 가-4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바퀴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손님  
달려라 달려라 우리집까지  
여기는 우리집 운전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가-5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언니는 모자에 반짝이는 중학교뻬지  
매일 아침 그걸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학교에 다닌다고 뽐내지 말아 (헤이!)

가-6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때 뽕뽕뽕 봄나들이 갑니다.

가-7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간질간질 간질병에 걸려 병원에 갔던 의사가  
너같은 건 필요없다 저리 꺼져라

가-8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사랑하는 아줌마 뒷산에 가서 일하고  
아들낳고 딸낳고 고이고이 잘살아라

가-9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어머니 육성희비 내어주세요  
아버지 육성희비 내어주세요  
돈없다 돈없어 내일 아침 내주마

구연상황 : 옆으로 서서 한발을 고무줄로 감고 한발로 앞뒤를 왔다 갔다하는  
특이하고 힘든 놀이여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가-10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아도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구리 목청도 좋 다.

가-11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은절미 아가씨가 시집을 간다      콩가루와 동가루를 화장을 하고  
새빨간 장마니에 굴러있다가      들어이~ 갑니다      입속으로

가-12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가달이 찢어진다 올라가지 말아라  
엄마 엄마 불러봐도 소식이 없네  
엄마는 시냇가에 빠져 죽었네

가-13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발간 동그라미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짹자꿍  
그것을 보고 있던 순이엄마가 방바닥을 두드리며 하하하

가-14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바다에서 사는 사람은 제주도 남제주군 사투리래요

가-15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할머니 들어가고 두부장사 들어가고  
색시 들어가고 냄비뚜껑 들어가고  
다람쥐 들어가고 모두 모였다.  
할머니 나가고 두부장사 나가고  
색시 나가고 냄비뚜껑 나가고  
다람쥐 나가고 모두 나갔다.

가-16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종달종달 종달새 신나겠구나 구름타고 가는데 신나겠구나  
저산너머 저언덕 언니산으로 코스모스 빨갇게 피어있겠지

가-17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살랑살랑 신바람을 타고서 강남갔던 제비가 인제 돌아와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를 한다.

가-18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월남마차 타고가는 캔디 아가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19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가거라

#### 가-20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삼월 하늘 가만히 우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육속에 잡혔어도 만세부르다 삼월하늘 그리다 생각합니다

#### 나-1 말잇기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시뻘경	빨간건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르건 바다
바다는 짜다	짠건 소금
소금은 희다	흰건 토끼
토끼는 편다	뛰는 건 공
공은 둥글다	둥근건 지구

#### 나-2 말잇기 노래

월요일엔 월급타고	화요일엔 화장하고
수요일엔 수박먹고	목요일엔 목욕하고
금요일엔 금반지끼고	토요일엔 토끼사냥
일요일엔 일기쓰기	

다-1 머리깎은 놀리는 노래

딱딱 대가리 얼마주고 깎았나 10원주고 깎았지

다-2 머리깎은 아이 놀리는 노래

OO야 놀자 대머리 깎아라

이왕이면 딱딱깎아라

라-1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감자 감자감자씨야

라-2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 동 묘 지

으악 공 동 묘 지 으악으악

라-3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빈대빈대 빈대뿔 가나다라마바사

우리우리 설날은 주먹뿔 가위뿔 바닥뿔

라-4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하나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서 잘잘잘

둘하면 두부장사가 칼질을 한다고 잘잘잘

셋하면 새각시가 반지를 낀다고 잘잘잘

넷하면 넷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하면 다람쥐가 알밤을 주운다고 잘잘잘  
여섯하면 여학생이 시험을 본다고 잘잘잘  
일곱하면 일본놈이 칼질을 한다고 잘잘잘

구연상황 : 노랫말에 맞는 동작을 하면서 불렀다.

라-5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저기  
엿서한장 써주세요 한장말고 두장이요 두장말고 석장이요  
후리후리후리 가위바위보

라-6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꿀떡 항아리 누가 먹었나	선회가 처먹었지
그걸 누가 먹어	내가?
그럼	난 아니야
그럼 누구	은희가 처먹었지
그걸 누가 먹어	내가?
그럼	난 아니야
그럼 누구	

라-7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럭키세븐 럭키세븐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세븐  
시장에 가면 0도 있고 0도 있고

라-8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남산위에 초가집 짓고 예쁜 얼굴로 달려갔더니  
열집 순이는 시집을 가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그 놈의 계집애 두고 보자고 누가 이기나 대결해보자

마-1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엄마 무사	학교가라
선생님 무사	몇 점 빵점
엄마 무사	빵점 나가라
선생님 무사	몇점 오십점
엄마 무사	백점 나가놀아라

바-2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딸기 딸기 새딸기 사다주신 새딸기  
영희야 영희야 딸기 먹어라  
싫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사-1 기타

꿈쩍 꿈쩍 고사리 꿈쩍  
제주도 한라산 고사리 꿈쩍

사-2 기타

우리집에 왜왔니 왜왔니 꽃을 따러 왔단다 왔단다  
누구꽃을 따러 왔느냐 왔느냐  
수선화꽃을 따러 왔단다 왔단다

### 3. 개사곡

가 '산할아버지' 개사곡

산할아버지 실수하셨네  
앰블런스에 실려가셨네

전봇대에 해당하셨네  
공동묘지 입학하셨네

나 '아빠와 크레파스' 개사곡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 화가 나신 모습으로  
한손에는 몽땡이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한대맞고 울었어요 두대맞고 기절했어요  
세대맞고 입원했어요 네대맞고 천당갔어요

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개사곡

하늘에서 별을 따다 누군가 떨어졌네  
팬티를 잃어버렸네 똥팬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팬티가 네 팬티나  
팬티 좀 빨아 입어라.



# 說 話

指導教授: 김병택

指導補助: 현승환

班 員: 오충훈(3), 김숙희(3), 허선영(3)  
최미순(3), 강 철(3), 임미경(3)  
강희숙(2), 고정희(2), 이현숙(2)  
오진숙(1), 부상용(1)

1. 오찰방 이야기
2. 효자 이야기
3. 쌀손드르
4. 소, 말도둑 잡은 이야기
5. 구석밭
6. 토기 이야기
7. 막산이 이야기
8. 오찰방 누이 이야기
9. 수월이물 이야기

조사자들이 이장님(강창언씨)께서 알려주신 제보자들을 찾아갔을 때, 상동에 있는 오래된 풍나무 밑에 마을 어른 몇 분이 더위를 식히고 계셨다.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에 처음엔 몇 번 고개를 저으시더니, 어느 새 이야기를 흥 돋구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생한다며 음료수와 음식들을 내오셨다. 구억리

마을분들은 대체로 온순하시고 친절하셨고 많이 협조해 주셨다.

[제보자 1]

남제주군 구역리 794  
고 태 길 ( 남,85세 )

### 1.오찰방 이야기

엔날에 대정서 사느 사름인디 산방드레<sup>1)</sup> 오가가 살았는디 오찰방 아방쪽이 원채<sup>2)</sup> 부제<sup>3)</sup>로 사난, 주식을 메누리가 배난 이제 잘 맥이른 아가 실한 걸 나을 거랜. 경헌 메느리를 잘 맥였어. 쉼<sup>4)</sup> 열두마리인가 잠앙 맥이나네 나는 거 보난 지집아일 낫어. 지집아일 나부니, 이젠 '아, 그렇구나' 했주.

썸 이시난 메누리가 아일 베니깐 이번도 꼴 날꺼라헨 이번에랑 쉼 아홉모리 잠앙 맥였어. 난 건 보난 아들이라.

경 맥연 나난 오찰방이 힘이 좋아. 엔날에는 서울 근방에서 씨름대회가 이서, 오찰방이 가른 꼭 일동해. 근디, 오찰방 누이가 그만히 생각해보난 이번도 가른 오라방이 이길건디. 이기른 거기서 자주 영 보민, 지는 놈쪽에서 우리 오라방을 죽여 볼겐 힘직 허거든. '에에, 못 쓰겠다'허영 이제 누이가 남장해서 상투 올리고, 서울 강 보난 지네 오라방이 씨름에서 이경 우에 샐았거든.

'이번에 이기꼭 허른 저 놈 죽여볼민 우리도 일동 헐건디'허연 모다들영 꼭 승시가 남직허니, 그 오찰방 누이가 일이 남직허연 '다시 한번 볼을 수가 잇느냐'고 오찰방신디 물어난 '그렇게 하자'고 헨 헐신디. 오찰방 누이가 탁 내다 처부난 '이거참 매해 일동하는 오찰방 이기는 놈이 있다'고 해서, 오찰방이 애석허텐 생각헌지라.경헌연 상금도 못타고 집에 돌아온거라.

집의 먼저 도라아온 누이가

"오라방 무사<sup>5)</sup> 탄복헐수과?"

"세상에, 내가 서울 장안에서 씨름을 해도 내 지어본 적이 읍는다.아,오늘은

---

1) 산방 쪽에 2) 워낙 3) 부자 4) 소 5) 예

어떤 늑안테 졌다.”

“아! 경허꽈? 그건 나라. 나가 가네 이번에 오찰방이 일등허민 뚝 죽여봄직허연 내가 장 이긴거라.”

“아, 개매. 날 이기는 늑이 읍주께.”

허멍 오찰방이 탄복을 해나서께.

덕수서 난 일인디, 오찰방이 몸이 부직부직허니 지아방이 보난 요 늑이 큰일날 늑이라 아무래도 요늑 사고가 잇슴직헌 늑이라 허연.

계연<sup>6)</sup> 급하니 오찰방 아방이 이 늑을 뉘영 옷 뱃겨보난 주짱이<sup>7)</sup>로 놀개달린 게 보인거라.

‘아이고 이 늑 심영<sup>8)</sup> 이걸 자져부나<sup>9)</sup> 해야겠다.’

경 막 해가난 오찰방이 깨난 보난 지아방이 그런 생각을 햐거든. 주짱이로 돈은 걸 지져블라고. 그 때는 장수 나민 나라에서 큰일난텐 죽여 블 때라. 역적이 렌

경헌디 이늑이 역적됨직허연 지아방이 지져블겐 허난, 오찰방은 남신 신영 산방산 오름드레 올랏주께. 지아방이 바짝 좃아오난게. 막 올라강 더 올라갈 때 어시난 오찰방이 줄라 뛰엇거든. 아, 뛰니까 ‘이 늑이 큰일날 늑이다’고 지아방 생각헌거라. ‘바당물에 빠져 죽었구나’헌 거주.

경헌 집의 왕 보난 오찰방이 쿨룩쿨룩 줌<sup>10)</sup>만 잠서라.

## [제보자 2]

남제주군 구역리 716번지

박 근 호( 남, 65세 )

## 2 효자 이야기

---

6) 그래서 7) 겨드랑이 8)잡아서 9) 지져버리거나 10) 잠

하르부지가 병환으로 앓다가 운명하게 되니깐 “하르부지가 위독하니깐 빨리 와 보십시오” 하는 연락이 완게.뵈되11) 일어나 아버지신디게.왕보니깐 하르방이 사경을 헤매고 이신거라.

게서 우리 아버지가 어무니한테 “상을 출려라”했덴. 어무니는 무신 뜻인지 몰라도 상 출리난, 아버지가 향불을 피우랜 허는 거라. 경헨 향불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대문 앞에 놓으랜 허연 거기 낫주게. 아버지냥으로 작위 좃아내고 향화를 허곡 문전에 절 삼배 허곡, 경헨 문지방에 가운데 손가락 낡 작위를 딱 한번에 찍은거라. 경헨 사경 헤매는 하르부지 입에 출혈하는 손가락을 물린거라. 물리니까 할아버지가 그 혈을 받아 마셨다는데, 그게 딱 한번으로 끝났지만 육년동안 사신거라게.

젠디 할아버지가 위독하게 될 때마다 아버지 가운데 손가락이 앓렸덴게. 몽증이 온다고게. 아. 그러면 “이상하다. 집에 가야겠구나.”하고 생각했덴. 그게 한번 두번,꺾다보니깐 왕 보든 할아버지가 신음하고 있다 이거라. 경허면서도 어찌어찌 육년을 연명한 후 하르부지가 작고 하섯덴게. 경헨 효자비가 세워진 거주.

### 3. 쌀싼드르

쌀싼드르12)는 서광남쪽에 이신디, 무사 쌀싼드르랜 허나 허든.

장군이 물을 타고 그 쌀을 쓰니깐 돌이 화살 맞앙 구멍 뚫리고, 물발자국이 나있덴게. 물이 워낙 빠르고, 그 장군은 팔을 잘 썩신디 팔을 탁 쓰면서 이 화살이 돌에 꽂힐 때 물이 거기서 동시에 도착허연 발자국이 박힌거주게.

거기에 물자국이 딱 하나 이신디, 물발자국 똑 닮았주. 경헨 쌀싼드르랜 허는 거라.

### 4. 소, 말도둑 잡은 이야기

---

11) 밭에 12) 화살을 쓴 돌

엔날에는 구억리에 물이 어시난<sup>13)</sup> 여기에 물통을 파서 써신디 그걸 다리논물 이랜 했주.거기에 팽냥이 잇는디, 테우리<sup>14)</sup>들이 그 그늘에 안장 쉬어신디. 구억리의 쉼,물이 전부 다리논물의 물을 먹게 되었주.

경헌디 거기서 동남쪽에 조가집터가 이서신디. 쉼금승<sup>15)</sup>물금승이 자꾸 읊어 지거든. 경헌 자꾸 '이상하다.이상하다' 했주

이제는 범인을 포착할 길이 읊어가지고 그 나무 아래로 한참 고민하면서 얘기하기를.

“막 애를 쓰면서 범인 잡으려고 허지를 말짱.”

경헌 자연히 언젠가 꼬리가 길면 밟힐 날이 이시난. 이젠 대낮에 테우리들끼리 앉아서 환담을 하다가.

“이 피기 저 피기 중에서 무슨 피기가 제일 맛 좋은고?”

헌거라. 경헌 사름마다 다 맛좋은 피기 얘기를 했주

“뚝피기가 맛 좋아”

“생선이 맛 좋아”

“에이 것보다 더 맛좋은 피기가 잇지 않허카?”

사름들이 경험가난 조씨가 무의식 중에

“아,이거고 저거고 뭐 쉼금승피기,몽생이 밖에 으서.”

거기서는 몰임자영 쉼임자영 관심을 안 갖는 걸로 생각허영 자기는 무의식중에 거기서 얘기해분거라.

‘아, 우리는 이제까지 잡젠 막 해신디, 요 늑이구나.’헌거라. 경헌디 지는 범인이 아니랜 막 변명할 꺼 아니? 게난 사름들이 조씨 집에 강 막 찾아봐도 못 찾아신디

“에이 개민 우리 마루나 뜯영 보게”

경헌 마루 뜯영 보난 망대기들이 짝 잇거든게.그거 열영 보난 몬딱 피기겠이라. 조가는 그 것을 구워먹고 삶아먹고 헌거주게. 그래서, 범인을 거기서 못 살고 쫓겨났덴 허여.

---

13) 없으니까 14) 말을 모는 사람. 목동 15) '금승'은 한 살된 짐승을 일컫음

[제보자 3]

남제주군 구역리 686

강 창 언 (남,54세)

### 5. 구석밭(설촌유래)

구역리 부락이 처음 형성될 적에는 구역리 저 위에 가보른 구석밭이 어서신다, 구석밭으로 인해서 구역리란 이름이 되게 됐는데 그 구석밭이라는 밭이 이서 가지고 '구석밭,구석밭'이라고 처음 했주.

그 밭의 귀가 아홉개라. 그 구석이 아홉개 되니까 아홉구석밭이랜 해나서. 경헨 처음사름이 살기는 그 구석밭 주위에 혼 몇가구가 살기 때문에 구역리 사람들을 구석밭이랜 불렀거든. 거기 맨 처음 사름 살게 된 것은 그래<sup>16)</sup>를 만들기 위해서 구역리 사람들이 거기 정착한 살았주. 경헨 그래동산이랜 불렀주게. 거기 다리논몰이 있고, 그 다리논몰에서 동남쪽으로 가민 조씨가 처음 살기 시작했던 해서, 조가집터랜 불렀고, 또 다리논몰에서 서쪽으로 가민 양씨가 처음 살기 시작해서 양가집터랜 불렀고 경허고 양가집터에서 남쪽으로 가민 고팡우랜 현 사름이 살암 고팡우집터랜 했던허여.

이 주위에 곁씨,양씨 조씨 그런 사름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구역리 부락이 형성되 가지고 그래를 만들고 축사허곡 토기 만들명 살았주게 .

### 6. 토기 이야기

다리논몰 이신디서 북쪽으로 들어가민 새샘이라는 못이 이서나신디. 그 쪽으로 가민 토기굴이 이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허벽<sup>7</sup>튼거<sup>17)</sup>, 둥이 <sup>7</sup>튼거 만들어 갖고 경 다니명 물물교환 했주게. 경헌디 상동가민 가마굴이 두개 이서. 그릇

---

16) 뗏들 17) 같은 거



구우민 노란 토기가 나오는 노랑굴이 있고 향아리 구우민 거명하게 나오는 검은 굴이 이서났주.

검은 그릇에 물을 받아서 먹으믄, 옛날엔 생수가 어시나 전부 빗물을 받아 먹어신디. 노랑황에 나뉜 물은 시원허질 않허여. 경헌디 검은 그릇에 물을 받아 논건 여름에 먹어도 시원해 가지고 물 받아 먹을 때 검은 그릇 쓰고, 곡식 같은 건 노랑그릇에 담았젠게

7. 막산이 이야기

서부산업도로로 쪽 올라가민 지금도 막산이굴이랜 있덴게.

막산이가 체격도 좋고 식성도 좋아. 그 사름이 혼기 먹젠 허믄 음식 먹는게 열사름 이상치를 먹어야 막산이가 배가 불렀젠. 옛날에는 계속 흉년돌고 먹을 거 어성허는디 음식이 모자랑<sup>18)</sup> 막산이가 사는 집에서 막산이를 쫓아부런. 그 사름이 살디 어성 이 드르에 나와. 그 굴에 살명 소 같은거 먹으멍, 막산이굴이랜 햐주.

[제보자 4]

남제주군 구억리 794  
양 춘 옥(여,61세)

8. 오찰방 누이 이야기

시집간 오찰방 누이가 혼루는 친정에 와그네, 친정에서 곡식을 눌러놔두민 친정아방한테 그 곡식을 좀 줘<sup>19)</sup>허민

“어서 니 냥으로 혼짐 저가라”

경허민 힘센 오찰방 누이가 늘채<sup>20)</sup> 톱 들러냥 정 가부러<sup>20)</sup>헐허여

18) 모자라서 19) 주시라고 20) 곡식을 배어서 묶는 단위로, 경운기로 6번 정도

(조사자와 제보자 : 한바탕 웃음)

## 9. 수월이물 이야기

사람들이 이녁 밧디 검질메러 가 가만, 그 수월이물이 집터랜. 거기살명 알트  
레<sup>21)</sup> 사람이 가가민 이제 지네 집트레 다 끌어들영그네 지네일부터 허랜. 경혜  
그네 남의 사름들을 무음대로 일 못허게 혼 모양이라. 막 지네일부터 해그네  
허랜 허든, 그 사름들은 허랜 허는 양 허는 모양이라.

경혜 그 사름 죽으난 그 부락 사름들이 하도 애석헨 그 집터를 막 파올령 물  
통을 만들어부랏젠. 게난 수월이랜 현 사름이 살아나난 수월이물 수월이물이랜  
햐젠..

---

심는 양을 묶은 것을 말함

21) 아래 쪽으로